

'AI 훈풍' 日증시, 34년 만에 최고치 연일 경신 12

현대차, 아산공장 설비전환... EV라인업 확장 가속 13

코스피(13일) 2649.64 (+29.32P) 코스닥 845.15 (+18.57P)
환율(달러당 원화) 1328.10 (-0.10원) 금리(국고채 3년물) 3.341% (+0.036%p)

시총 서열도 바꾼다... 글로벌 증시 'AI 천하'

과기부 "과학기술 강국 도약" 국민 AI일상화 7737억 투입

엔비디아, 시가총액 2조달러 목전
장증 알파벳 등 제치고 3위 올라

ARM, 기업공개 후 주가 3배 ↑
3거래일간 상승폭 100% 육박

MS, 생성형AI 업고 애플 추월

인공지능(AI) 열풍에 관련주들이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다. 미국 증시에서는 AI 투자 여부에 따라 실적과 더불어 시가총액 순위까지 바뀌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투자 전문매체마켓워치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장중 한때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아마존을 제치고 시총 3위에 올랐다. 이후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시총 5위로 마감했지만, 시총이 1조8300억 달러(약 2432조 원)에 달해 2조달러 클럽 가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관련기사 12면

시총은 1년 전보다 3배 이상 불어났다. 엔비디아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오픈AI의 챗GPT가 촉발한 생성형 AI 붐으로 GPU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엔비디아 주가도 치솟고 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업체 ARM 주가도 지난해 9월 기업공개(IPO) 이후 3배 가까이 뛰었다. 12일 하루에만 29% 넘게 폭등해 최근 3거래일 동안 상승 폭이 100%에 육박했다. 일일 거래량도 최근 3개월 평균의 10배가 넘는다. 그 결과 현재 시총은 150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이는 보잉이나 AT&T보다 높다.

ARM은 지난주 기업 로열티의 15%를 차지하는 최신 제품인 'ARM v9'의 이익

이 이전 버전보다 두 배 많다고 밝혀 투자자들을 흥분시켰다. ARM은 투자자 서한에서 "로열티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는 클라우드 서버와 자동차 관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보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망도 밝다. ARM은 1분기 매출 전망치를 최대 9억 달러로 제시했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인 7억7800만 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ARM 상승세에 모기업인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역시 하루 새 11% 폭등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지난번 실적 발표 당시 AI 투자 강화와 함께 ARM 반도체 설계의 활용 방안 모색을 약속해 투자자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소프트뱅크는 2016년 ARM을 320억 달러에 인수했고 현재도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다.

AI가 주식시장 내 빅테크 세력도를 본격적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은 작년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된 지난달부터다. 오픈AI와 긴밀한 관계인 마이크로소프트(MS)는 약 2년 만에 애플을 제치고 세계 시총 1위에 올랐다. 당시 MS는 지난해 4분기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 증가율이 30%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아마존(13%)과 알파벳(26%)의 클라우드 사업부 성장세를 웃도는 성적이었다. MS는 생성형AI로 인한 매출 증가율도 이전보다 6%포인트(p) 올랐다고 밝혀 AI 효과를 입증했다.

트리플디스플레이의 데니스 닥 트레이더는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AI 관련 모든 것에 대한 열광적인 모습"이라며 "개인 투자자들도 참여하고 있고 일부는 선물을 구매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그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5만달러 뚫은 비트코인 '현물 ETF 효과' 등으로 비트코인이 26개월 만에 5만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13일 서울 서초구 빙셀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실시간 거래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관련기사 15면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로 국민 생활에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7737억 원을 투입한다. 가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는 한편,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한다.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글로벌 연구개발(R&D) 예산을 바탕으로 올해 기술 선진국과의 공동 연구와 해외 인재 유치에도 나선다. ▶관련기사 15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서울 중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3대 계급 체인저 기술'로도 불리는 양자역과 AI, 첨단바이오에서 올해 본격적인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전 산업과 국민 일상에 AI를 확산해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본격 나선다. 국산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도 마련한다.

의료·교육 등 필수 서비스에 AI를 적용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AI 일상화 프로젝트에 7737억 원을 투입한다. '마이닥터 24' '나만의 교과서' 등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R&D·서비스·제도 개선 등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지원한다.

통신 분야에서는 다음달 3만 원대 5G

내달중 3만 원대 5G 통신요금 신설 개방형 양자칩 등 연구 인프라 확충

금제 최저구간을 신설하는 한편 다양한 혜택을 주는 청년 요금제를 신설한다.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국내 정착 전 주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글로벌 R&D 특위'를 신설하는 등 기반을 마련한다.

혁신적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R&D 사업에는 예산을 확대하고 차별화된 제도를 마련한다. 정부 R&D 투자는 세계 5위 수준이지만, 글로벌 R&D 투자 규모는 지난해 기준 전체 R&D 예산의 1.6%에 불과했다. 이에 R&D는 국내에 머무는 '나 홀로 연구' 위주로 추진, 기존 국제공동연구는 소규모·단발성 위주로 소극적으로 운영하면서 국가주도의 기술주력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양자 분야에서는 '개방형 양자칩' 구축에 착수해 연구자들이 대형 장비를 공유해 쓰면서 자신의 탐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양자 컴퓨터를 원격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 신약 개발과 신소재 설계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세계 최고 연구진이 함께 혁신적 연구에 도전하는 R&D 허브를 만들고 AI·디지털로의 대전환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이자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나리 기자 nari34@

尹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산은 조속히 이전"

지방시대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일자리·인재·생활환경이 연계된 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3대 민생 패키지는 경제(SOC·일자리·투자)-복지(문화체육·의료·생활편의)-교육(인재양성·특화교육)을 연계한 모델이다. ▶관련기사 4면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1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특별법 제정 통해 제2 도시로 육성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 3대 민생패키지 과감히 추진할 것"

계출산을 1.0명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정부는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일자리, 인재, 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이곳, 부산"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첨단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우선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울·경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 산업은행법 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부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글로벌 허브 도시의 핵심인 국제업무지구로 발전시키겠다"며 "2027년까지 해양 레포츠 단지, 오페라 하우스, 수변테마파크 등 해양관광과 상업, 문화, 국제행사가 결합한 1단계 국제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단계로 국제행사, 금융 비즈니스, 연구개발(R&D) 시설들이 차질 없이 들어서도록 개발해 나갈 것"이라며 "부산시민 염원인 북항 재개발을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교육과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보해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면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자율형 국립 고교, K팝 고교 설립 등을 거론했다.

이어 "부산 어린이 병원 건립을 중앙 정부에서 지원할 것"이라며 "낙후된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중앙 정부가 지원하겠다. 또한 부산의 상징과도 같은 영화 산업을 지역 문화 발전과 원도심 부흥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최태원, 獨 경제사절단 동행... MWC서 '생성AI' 살핀다



상의 회장 자격... 19일 출국 반도체·미래 에너지 등 점검 스페인 MWC 2년 연속 참석 글로벌 CEO들과 회동 가능성

연초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를 찾았던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이 설 연휴 짧은 휴식을 마치고 이번엔 유럽 지역에서 글로벌 행보를 이어간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19일 독일 경제사절단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동행한다. 독일 경제사절

단은 비즈니스 포럼 등 경제인 행사를 통해 참가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현지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독일은 자동차와 전장 부문에 강하다. 이를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이어 26~2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24'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참석한다.

최 회장의 MWC 참석은 2년 연속이다. 올해 들어 테크 전시회 참석만 'CES 2024'에 이어 2번째다. 올해 MWC에는 전 세계 200여 개국 2000개 이상 기업에서 8만5000명 이상이 참가할 예정이다. SK에서는 최 회장 외에도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주요 경영진이 출동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이번 MWC에서 챗GPT가 촉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 경쟁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SK ICT 분야 주요 경영진과 디지털 사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SK텔레콤은 세계 유력 통신사들과 함께 공동의 AI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를 결성했다. 최 회장은 당시 온라인으로 진행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적절한 시점에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MWC에는 당시 주요 참여사가 모두 모이는 만큼, 반년 만에 다시 최고경영자(CEO)들과 회동할 가능성이 높다. AI 기술 경쟁이 예고된 MWC 행사에서 SK 임직원과 한국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노력자로서의 역할에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연초부터 해외 주요 국가를 방문하고 유력 인사를 만나며 글로벌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망 안정화, 관계 구축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최 회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SK CEO 세미나'에서 그룹 차원으로 글로벌 인프라를 확대해 각사 간, 국가 간 사업 경쟁력과 협력 시너지를 높이자고 강조한 바 있다. 12월에는 미국 실리콘밸리 중심지인 새너제이 소재 SK하이닉스미주법인, 가우스랩스, 루나에너지 등 계열사와 투자사를 잇달아 방문했다.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은 반도체, AI, 미래 에너지 등 그룹 핵심 사업을 직접 챙기기 위해 글로벌 행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수출도 증시도 반도체가 이끌었다... 경기 뿔뿔 드나

연초 우리나라 경제에 반도체 효과가 감지되고 있다. 외국인인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것이라 기대감에 국내 주식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기술(IT) 품목이 수출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자금은 25억1000만 달러 순유입으로 집계됐다. 작년 12월(25억2000만 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다. 채권자금은 작년 말 7억9000만 달러 순유출에서 지난달 18억9000만 달러 순유입으로 전환했다. 작년 8월(9억1000만 달러 순유출), 9월(13억3000만 달러 순유출), 10월(22억 달러 순유출)에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자금은

1월 증시 외국인투자 25억弗 유입 채권도 18.9억달러 순유입 전환

이달 1일~10일 일평균 수출액 11.7% 증가... 반도체는 42% ↑

순유출을 기록했다. 작년 11월 26억4000만 달러 순유입으로 전환한 이후 석달째 해당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주식자금은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 지속 등으로 상당폭 순유입했다"며 "채권자금은 연초 해외 투자기관들의 투자 재개 등으로 순유입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수출에서도 반도체 역할이 컸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2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0억1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6% 감소한 수치인데, 이는 설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6.5일로 작년(8.5일)보다 이틀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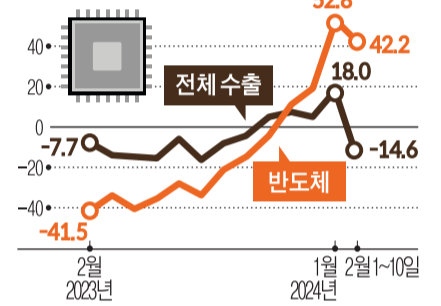
주목할 수치는 일평균 수출액이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작년 20억7000만 달러에서 올해 23억1000만 달러로 11.7% 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42.2% 늘었다. 1~10일 기준 반도체 수출이 40% 넘게 증가한 것은

2021년 11월 45.2%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 월간 수출액은 작년 11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반면 석유제품(-21.0%), 승용차(-36.3%), 철강제품(-23.6%), 선박(-35.6%) 등 주요 품목 대부분은 수출이 감소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이 20.3% 감소했다. 지난달 대중(對中) 수출은 20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이달 설 연휴 및 중국 춘절로 주춤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수출도 12.4% 감소했다. 다만 대미 수출액은 28억4400만 달러로 대중 수출액(28억1700만 달러)을 웃돌았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수출액 증감률 (단위: %) * 출처: 관세청 * 통관 기준 잠정치, 전년 동기 대비



은 "2월 수출이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설 연휴로 조업일수가 부족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이달은 설 연휴 및 중국 춘절로 자동차, 대중국 수출이 주춤할 수 있으나 반도체, 컴퓨터 등 정보기술(IT) 품목 중심으로 전체적으로는 수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패션·뷰티·헬스

한섬
현대바이오랜드

유통

현대백화점·아울렛
현대홈쇼핑
현대백화점면세점

종합식품
현대그린푸드

토탈리빙·인테리어
현대리바트
현대 L&C
지누스

차량·건설장비
대원강업
현대에버다임

여행·복지·디지털·IT
현대드림투어
현대이지웰
현대퓨처넷
현대IT&E

현대백화점그룹은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5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생활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종합생활문화기업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 지주회사
현대지에프홀딩스



탄력받는 행동주의 펀드... 밸류업 꼬이면 언제든 '먹튀'

단기 주가 부양 '양날의 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명석이 깔린 틈을 타 행동주의 펀드들이 활개를 친다. 주가 상승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개인투자자도 이들 행동주의 펀드에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행동주의 펀드의 과도한 경영 개입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칫 과도한 주주환원 요구가 재무구조 악화, 투자 위축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다.

시장 전문가들은 진정한 '행동주의'가 한국 자본시장에 뿌리를 내리려면 단기 주가 부양이 아닌 정부의 실효성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그래야 '행동주의 활동 강화'→'주주 가치 제고(배당, 자사주 소각 등)'→'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국민부 증대)'→'기업 투자 확대'→'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목소리 커진 행동주의 = 3월 주주총회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시기가 맞물리면서 행동주의 펀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VIP자산운용은 3월 정기주총을 앞두고 삼양패키징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 중기 주주환원정책 제시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시티오브러던인베스트매니지먼트(CLIM), 화이트박스어드바이저스, 안다자산운용 등 국내외 헤지펀드는 최근 상장사를 대상으로 배당금을 늘리고 자사주 매입을 하라는 주주 제안서를 제출했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에 주당 82만 원에 보통주 및 우선주 일반주주 지분 50%를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일반주주가 소외됐다는 게 이유다.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기업가치(지배구조 개선)를 끌어올리고, 주주 가치 제고에 긍정적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최근 행동주의 펀드에 편승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졌다. 개

3월 주총 맞아 주주제안서 빗발 "따라사면 이득" 재미까지 빗투 반짝 주가, 기업 투자 확대 무관 전문가 "일관된 밸류업정책 관건"

미들은 '빗투(빚내서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8월 기준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이 많은 유가증권 신용거래용자산액은 9조165억 원에서 9조6804억 원으로 6639억 원 급증했다. 정부 주도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기대감에 저PBR 종목을 사들이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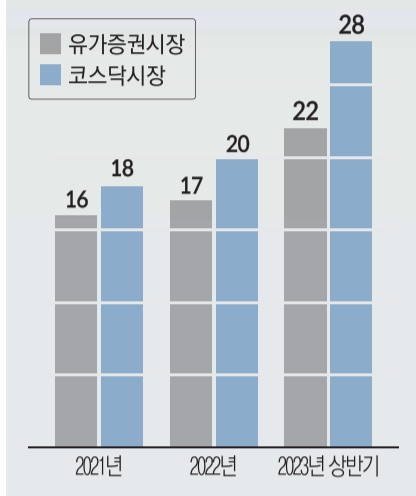
제2, 3의 '강따'(강성부 따라잡기)도 나타나고 있다. 한진칼,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이다. 투자법은 이렇다. 행동주의펀드가 저격하는 기업에 일단 따라 들어간다. 행동주의펀드가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주주 서한을 보내는 등 이벤트가 있을 때 뉴스가 쏟아지고 주가가 뛰면 팔고 나오는 식이다. 한대기업 관계자는 "행동주의 펀드의 목적은 결국 수익"이라며 "소액주주와 연대한 행동주의 펀드들의 요구가 기업의 성장과 펀더멘털 강화에 반드시 도움이 될지는 의문스러운 때가 있다"고 전했다.

시장 질서도 흔들린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주행동주의 대상 상장사 15개의 평균 주가 상승률 추이를 조사한 결과 주주 제안 이후 20거래일에는 주가가 13.27% 상승했지만 40거래일 9.06%, 60거래일 2.23%, 110거래일 0.23%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의도와 배치되는 현상이다.

◇신뢰받는 정책, 경제 선순환 부른다 = "배당 확대 등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지지하지만, (실현 가능할지)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대기업을 상대로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을 요구하며 '주주환원 확대'에 적극적인 한 행동주의 펀드 대표는 본지와 만난 사석에서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



주주 제안받은 기업 수 (단위: 개)
※ 출처: 한국ESG기준원



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불신을 전했다.

그렇만하다. 정부와 금융 당국자들은 공공재로 명명한 은행에 연일 날을 세우고 있고, 기업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라며 압박하는 모양새다.

시장과 체계에서는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주문한다. '주가 부양이 곧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공식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칫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먹튀' 행동주의와 기업 경영권만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사주를 한 예로 보자. 자사주 자체로는 의결권이 없지만 자사주를 백기사(우호 주주)에게 매각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자사주를 유사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2015년 삼성물산은 엘리엇 사태 때 자사주 5.8%를 우호세력인 KCC에 넘겨 승리했으며, 2003년 SK는 소버린 사태 당시 자사주 6.2%를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

에 매각해 경영권을 지켰다.

시장참여자들은 선부른 정책이 행동주의 펀드와 투자자들의 불신으로 이어져 시장 변동성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의결권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는 최근 일본 사례를 들어 "기업의 거버넌스 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제도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호정 서스틴베스트 책임연구원은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초점은 기업의 장기 성장성보다 단기적인 환차손익에 맞춰져 있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외 투자자의 단기적인 자금 유출입이 코스피 변동성을 더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업 내용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는 거버넌스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투지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주주환원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기업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미래에 대한 가치의 공유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금융권 "시어머니 한분 더 모시게 됐다"

지난해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 이어 행동주의 펀드 "주주환원 지켜볼 것" 금융권, 저PBR 바람에 주가 급등

"앞으로도 7개 은행 지주들의 자본 배치 및 주주환원 정책 준수 여부를 면밀히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다."

국내 7개 상장 금융지주를 상대로 행동주의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이창환 열라인파트너스 대표는 8일 입장 자료에서 "각 은행 이사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본 여력의 신속한 확충과 주주환원의 정상화를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쏟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진전들은 국가적 과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며 남은 과제 개선을 촉구했다.

시중 은행들이 공공재와 주주 권익 사이에서 외줄을 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의 공공재 압박에 공간 열쇠를 내줄 처지인 상황에서 행동주의 펀드까지 '주주의 목소리'라는 명분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다. 금융권에선 "한국 금융경쟁력이 더 약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은행 지수는 지난해 말 대비 16.40% 상승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4대 금융지주가 결산배당으로 지급할 총액은 1조7906억 원 규모다.

금융권에서는 '시어머니' 한분을 더 모시게 됐다고 하소연한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이 공익에 기여하는 성격이 있는 것은 맞지만, 주주환원을 요구하는 행동주의펀드의 목소리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난감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암묵적인 압박과 개입을 어떻게 버텨 나갈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국민건강보험은 소홀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은 국가건강검진으로 시작됩니다

- 매년 30%의 질병 조기발견
- 성·연령별 맞춤형 검진
일반검진(본인부담금 없음)
암검진(일부 본인부담금 10% 있음)
- 10년간 건강호를 한눈에
The 건강보험 앱(APP)
- 상담 및 문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가덕도 신공항 6월 부지조성... 북항 재개발 연내 2단계 착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가덕도 도로·철도 하반기 발주 북항 원도심, 新해양 중심지로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지정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6월에, 접근성확대를 위한 도로·철도 건설 사업을 하반기에 발주한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은 연내 2단계 사업에 착수한다.

정부는 13일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광역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하고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발표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물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물류 지원시설부지 126만㎡(축구장 약 180개 규모)도 함께 조성 중이다. 정부는 4월 말까지 공항건설을 전담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한다. 1월부터 보상을 위한 토지 및 물건조사에 착수했으며 여객터미널은 3~6월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한다. 부지조성공사는 6월까지 공사를 발주하고 연말에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다.

도로·철도 건설사업도 상반기 내 총사업비 협의의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한다.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되면 부산시청에서 가덕도 신공항까지 승용차로 1시간 내외(현재 인천공항까지 4시간 30분)가 소요돼 국

'지방시대 부산 모델' 일문일답

“가덕도 여객터미널” 내달 설계 공모... 2025년 6월이후 본공사 착공

공사부지 진입로 등 올 12월 착공 북항 1단계 기반시설 90% 완공 與野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한뜻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의 여객터미널 설계 공모가 내달 진행된다. 부지 조성 공사도 상반기 중 발주돼 신공항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설추진단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11번째 민생토론회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의 사전브리핑에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다음은 조봉업 지방시대위원회 기획단

제선 이용을 위한 공항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1단계 재개발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재래부두를 해양공원, 크루즈, 마리나, 랜드마크 등이 위치한 국제적인 해양관광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앞으로 오페라하우스 건립, 공공콘텐츠 설치, 트램 건설 등 재개발 조성부지 상부에 설치하는 공공 이용시설의 조속한 추진에 나서고 랜드마크 등 핵심 앵커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한다.

또 2단계 재개발 사업을 통해 항만, 철도, 원도심 지역을 국제비즈니스, 상업·금융 등 신해양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국도지주택공사(LH), 코레일, 부산도시공사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거쳐 사업에 참여한다.

정부는 부산시의 숙원 사업인 철도 지하화는 부산을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개발 여력을 포함해 사업을 건의할 수 있도록 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긴밀히 소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부산센텀2도심융합특구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거점으로 창업생태계 조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으로 조성한다. 부산센텀2지구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조 조성 중이며 부산시와 정부는 여기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문화)가 집약되는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형준(오른쪽) 부산광역시시장의 안전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	
1 가덕도 신공항 건설	국토부	3 구덕운동장 도시재생혁신지구	국토부
2 북항재개발사업 본격 추진	해수부	4 사직야구장 재건축	문체부
- 산업은행 부산 이전	금융위	- 어린이병원 건립	복지부
-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행안부	- 철도지하화	국토부
		5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국토부

교육 희망도시, 부산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발전 전략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지역인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 ※출처: 지방시대위원회

긴급 돌봄 3세~초3 24시간 '늘봄' 제공

부산시·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초·중·고 사교육비 부담 완화

앞으로 부산 지역에서 긴급 보살핌이 필요한 3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 까지 학생은 24시간 늘봄을 제공받게 된다.

정부는 13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의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열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부산의 늘봄학교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초·중·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절감시킬 방안으로 교육발전특구를 내놨다. 특히, 지역의 인구 감소로 지역 간 격차 심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부산형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이를 해결할 방침이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학년 방과 후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 희망학생 전원을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내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늘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긴급 보살핌이 필요한 3세~초3까지 24시간 늘봄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부산지역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및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과 아침제인지와 독서제인지를 통한 인성교육 등으로 부산발 공교육 체인지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대학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지역 공교육발전과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定住)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된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1차 지정공모 신청 결과 15개 시도의 94개 기초지자체 및 행정시(92개 기초지자체·2개 행정시)가 참여했다. 정부는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1차 지정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손현경 기자 son89@

장 등 각 부처 담당자와의 일문일답.

-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은

"계획을 구체화했다. 업계에서 언제 설계 공모 및 발주를 하는지 문의가 많았는데, 가덕도 신공항의 '얼굴'인 여객터미널 설계 공모를 3월 중 추진한다. 가장 규모가 큰 부지 조성 공사도 상반기 중 발주될 예정이다. 우선 시공분(현장사무소, 공사부지 진입로 등)에 대한 착공은 올해 12월이다. 본공사 착공은 2025년 6월 환경영향평가 완료 후다."

-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 기대 효과는 어떻게 추산한 것인가. 지난해 가덕도 신공항 브리핑 때와 사업비가 다른데, 이유가 무엇인가

"기대효과 추산 수치는 신공항 관련 사

업비에 관련 산식을 곱해 나온 숫자다.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사업비는 14조 3000억 원이었던 듯한데, 13조 5000억 원은 공항 부분이고, 연결철도 및 도로 총 사업비가 아직 협의 중이라 협의가 이뤄지는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08년 시작한 북항재개발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데 어떻게 진행되는가

"북항재개발사업은 노후화된 재래 부두를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1단계 사업을 2008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기반 시설의 90% 이상을 완공했다.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은 마무리된 상태로, 랜드마크 등 상부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가 과제다. 2단계 사업은 항만과 철도·원도심 등을 통합 개발하는 것으로, 올

해부터 자성대부두를 이전해 재배치하는 등 여러 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내용은 무엇인가. 야당이 다수 의석인 현 상황에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나

"부산의 경우 물류, 금융, 첨단산업 등에 특화돼 있어 이런 분야의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관련 특구를 설치하고 특례를 제정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특별법은 지난달 25일 전법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여야가 함께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이번 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의견을 내고 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낙후된 '사직야구장'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2만1000석 개방형 야구장 조성 롯데그룹과 재원분담 올해 협의

정부가 부산사직야구장을 중심으로 한 인근 부지를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정부는 13일 부산시청에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의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1985년 개장한 사직야구장은 롯데지연츠 홈구장으로 사용됐다. '아주라', '봉다리', '신문지 응원' 등 구장 특유의 응원 문화로 부산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의 명소가기도 하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다른 지역의 야구장이 신축을 거듭하는 동안 사직야구장은 낙후된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며 야구팬들의 불만을 샀다.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문제가 우려돼 재건축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이에 부산시는 재건축을 통해 사직야구장을 2만1000석 규모의 최신키 개방형 야구장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재건축된 구장을 중심으로 상업시설, 박물관, 생활체육시설 등 인근 부지를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부산시는 2년 전 롯데디자인츠와 재건축 관련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 사직야구장 재건축

기본계획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중앙투자심사를 추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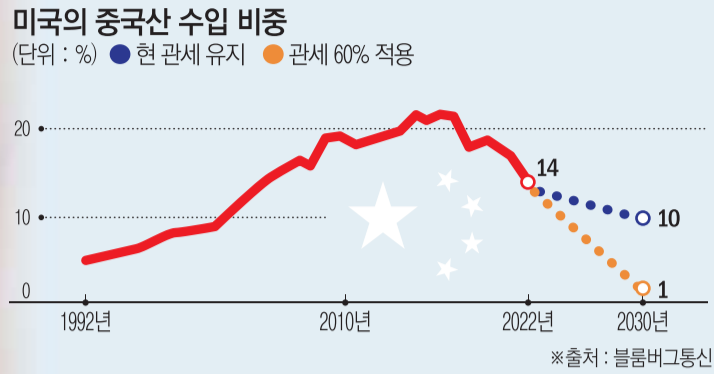
올해는 롯데그룹과 재원분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11월에 마무리되는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야구장 재건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 2026년 상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에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더욱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송석주 기자 ssp@

美,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누가 이겨도 '피' 보는 중

트럼프 “중수입품에 관세 60%”
바이든 “새 對中제재 카드 고려”
전문가 “둘 모두 中배제에 초점”
대선 앞 양국 냉각 분위기 고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 등 전·현직 대통령 간 신경전이 거세지는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압박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표심을 얻고자 두 후보가 이미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중국이 가장 큰 피해자로 남을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소 60% 이상의 관세 부과를 공언했다. 그는 포크뉴스와 4일 인터뷰에서 이에 관한 물음에 “우리 그렇게 해야 한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주 좋은 친구였지만, 그들은 우리를 이용했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이 과거 본 적도 없는 수준으로 우리 사업을 빼앗고 있다”며 “추가 관세를 통해 우리는 사업을 다시 미국으로 되돌리고 제조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의 첫 임기에서 25% 관세는 이미 중국 수출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구멍을 냈다”며 “60% 관세는 그 구멍을 분화구로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섬유와 전자제품 등 마진이 적어 관세 충격을 흡수할 수

없는 산업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위협은 관세만이 아니다. 그는 미·중의 양방향 투자에 대해 아예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도 이미 이 투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쟁자인 트럼프의 계획을 놓고 실효성에 의문을 던졌지만, 그 역시 만만치 않은 중국 압박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전 꺼낼 것

로 보이는 그 카드는 트럼프의 관세만큼 과감하진 않더라도 데이터 관리부터 전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관한 새로운 제재가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지난해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로 촉발된 미·중 긴장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대선 정국에 접어들자 그도 강경한 입장을 보여 미·중 관계

는 다시 냉각기에 접어들 조짐을 보인다.

베이징 대외경제무역대(UIBE) 교수이자 중국 상무부 고문인 상바이촨은 “두 후보 모두 큰 위협이다. 결과적으로 누가 당선되든 중국의 발전을 배제하고 억제하는 것을 전반적인 전략으로 삼는 차기 미국 대통령을 보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접근법’은 반중국 경제권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창출할 것이고 바이든은 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4%까지 떨어진 미국의 중국산 수입 비중은 향후 더 떨어질 것이 불가피해졌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해 현 관세 정책이 이어져도 그 비중은 2030년 약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실제로 60% 이상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1%로 사실상 양국 무역은 완전한 디커플링(탈동조화) 상태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고대영 기자 kodae0@

“포스트차이나는 없다 中, 세계의 공장 굳건”

중국이 경기 불안과 미국의 견제에도 ‘세계의 공장’ 지위를 뺏기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경제 전문매체 비즈니스인사이드는 12일(현지시간) 중국 경제가 부동산 위기, 디플레이션, 주식 폭락, 미·중 경쟁 심화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다른 나라가 중국을 대신해 세계 최고 제조업 강국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중 무역 관계가 관세와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악화하고 있음에도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수출국이다. 중국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약 15%에

달하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왜곡을 제외하면 사상 최고 수준이다.

미국이 중국을 대신해 베트남과 멕시코 등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고 있지만, 중국은 이들 제3국에 막대한 투자와 수출을 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헤지펀드 유라이즌의 스티븐 젠과 조아나 프레이레 전략가는 “중국은 최근 수년간 미국이 대체 수입처로 주목을 해왔다”며 “미국이 무역 분쟁에서 이겼을지는 몰라도 중국이 패배한 것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역할을 대신할 만한 국가도 없다. 중국의 생산능력은 다른 경쟁국들을 크게 웃돈다.

또 지난 3년간 멕시코와 베트남의 수출 가격은 각각 30%, 31% 상승했

다. 전문가들은 강달러 시기에 물가 상승률을 훌쩍 웃도는 수출 가격 상승은 적절한 인력, 인프라, 운송 부족 등 중국을 제외한 수출국들의 제조 능력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나타낸다고 짚었다.

세계가 중국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질 수는 있지만, 소규모 국가들이 중국과 대등한 제조 허브로 탈바꿈하기 위한 급격한 변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다.

젠과 프레이레 전략가는 “결론적으로 ‘제2의 중국’이 실제 중국처럼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중국을 대체할 제조 역량을 갖춘 국가는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역풍에도 중국을 투자 불가능한 국가로 볼 순 없다는 평가도 나왔다. 존 빌턴 JP모건체이스 글로벌 다중 자산 전략 책임자는 이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을 투자 불가 대상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며 “국채나 주식 등 여전히 중국에 투자할 기회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예를 들어 중국 채권시장의 거대한 규모와 상대적으로 적은 해외 자금 규모,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은 중국 국채 투자 시 유리한 부분”이라며 “금융과 고령화, 교통, 서비스 등 중국 경제 발전에 필요한 여러 테마가 있는데 이와 관련 있는 주식에 엄청난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 “예를 들어 중국 채권시장의 거대한 규모와 상대적으로 적은 해외 자금 규모,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은 중국 국채 투자 시 유리한 부분”이라며 “금융과 고령화, 교통, 서비스 등 중국 경제 발전에 필요한 여러 테마가 있는데 이와 관련 있는 주식에 엄청난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선 기자 hsyun@

기술가치투자 이제 퍼트려(PTR)! SK증권 PTR랩

PTR : 주가기술비율(Price Technology Ratio)로 상장사가 보유한 특허가치를 주가와 비교하는 지표임. PER이나 PBR처럼 기술가치 대비 주가가 고평가 또는 저평가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음.

고객행복센터 1599-8245

- ※ 투자자는 랩 계약에 대하여 SK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이 랩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이 랩 계약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가입하기 전에 고객님의 투자성향과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철저히 확인하신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 이 랩 계약의 선취수수료는 없으며, 운용보수 연 1.5%(분기별 0.375% 추위), 성과보수는 고객과 별도 협의로 매매 시 해당 상품의 약관, 설명서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05246호
13025.11.19 - 2022.11.19
SK증권 본회(대전)인사팀 021-901호
02025.11.19 - 2026.11.19

수출 줄고 이자 눈덩이... 올해도 날개 못 펴는 중소기업

소비심리 악화에 따른 중소·중견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현실로 확인됐다. 실적 발표 기간 공개된 중소·중견기업들의 지난해 잠정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 감소 기업의 수가 증가한 기업의 수를 크게 앞섰다.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악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유예 불발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등 올해도 실적 개선의 희망이 크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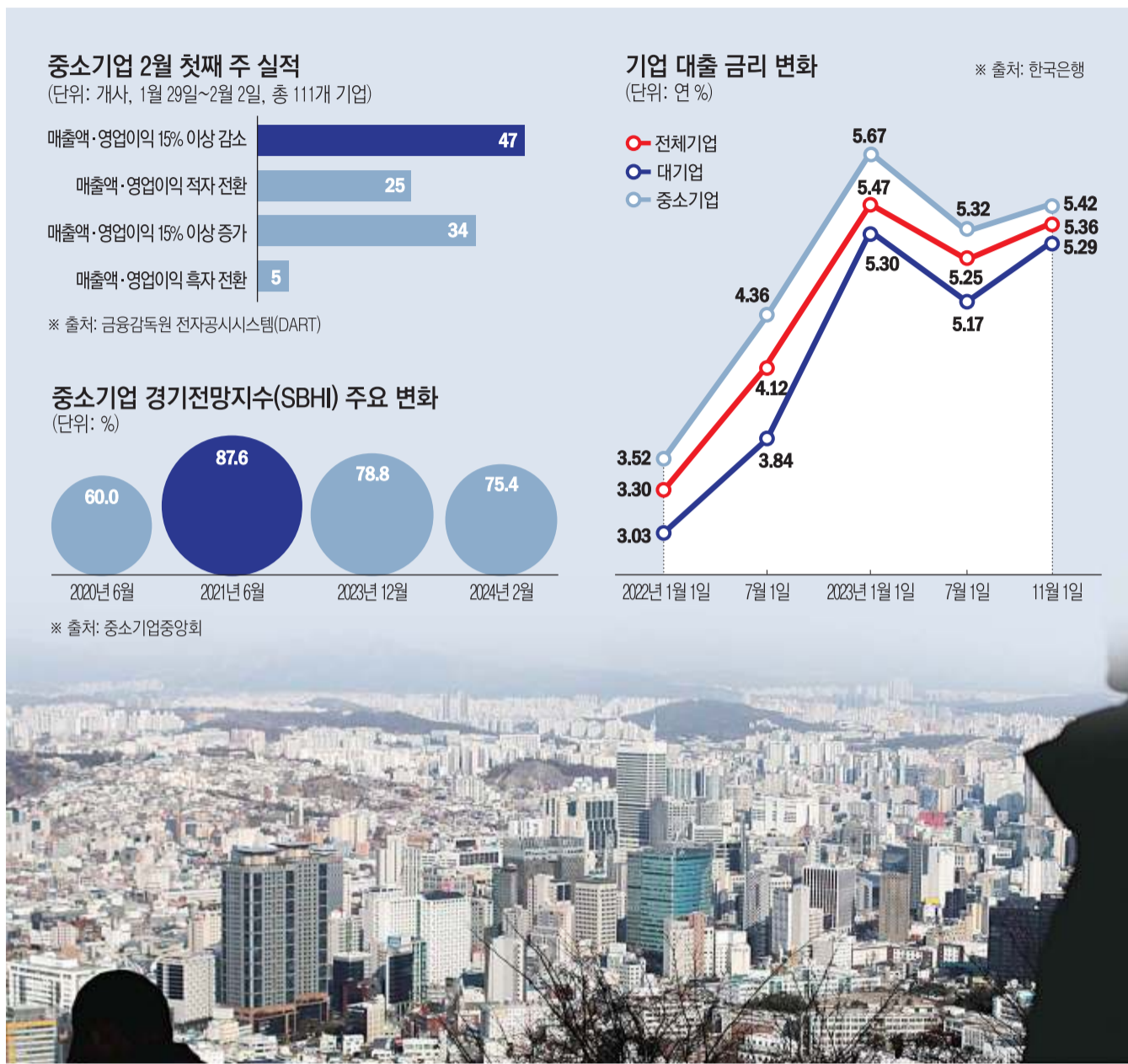
10개 기업 중 6곳은 실적 악화 통신·건설 제조업 매출 반토막 중처법 유예 불발로 비용 증가 고금리 장기화 등 경기 악재 겹쳐 작년 정부 경기부양 여력 감소 경제 성장 하방 요인으로 꼽혀

◇수주량 감소로 경영환경 불안=13일 본지가 기업 실적이 가장 많이 발표되는 2월 첫째 주(1월 29일~2월 2일) 공개된 코스닥상장사 111개 기업의 잠정실적 공시를 조사한 결과, 매출·영업이익이 15% 이상 감소하거나 적자전환(적전) 한 기업은 72곳으로 확인됐다. 이 중 47곳은 매출·영업이익이 감소했고, 25곳은 적자전환했다. 이는 조사 대상 중 64%에 해당하는 수치로, 10개 기업 중 6개 기업의 실적이 악화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매출·영업이익이 증가하거나 흑자전환한 기업은 39곳이었다. 이 중 34곳은 매출·영업이익이 증가했고, 5곳이 흑자전환했다.

이 기간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세계적인 기업들과 국내 시가총액 최대기업 삼성전자의 실적이 쏟아졌다. 이 때문에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가능자로 활용하기 충분하다. 그만큼 중소기업들의 경영이 악화했다는 의미다.

예컨대 정보통신기기 부품을 제조하는 중견기업 인탑스는 1조 원이 넘었던 2022년 매출액이 지난해 5773억 원으로 반 토막 났다. 매출액이 크게 하락하면서 영업이익은 1417억 원에서 179억 원으로



87.3% 감소했다. 회사 측은 실적 감소이유에 대해 "주요 고객사의 수주량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용 중장비 및 산업차량의 부품을 제조하는 프리엠스는 매출액이 2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6% 감소하며,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해 적자전환했다. 회사 측은 업황 부진으로 인한 수주 감소와 해외 법인의 영업 부진을 원인으로 꼽았다.

최근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중처법 유예가 불발되며 중소기업들의 비용 증가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의 증가도 영업이익 증가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올해도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이어질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오동운 중소기업연구원장은 "한국 경제는 양극화 심화, 인구 감소, 분열과 갈등(노사갈등, 세대갈등) 같은 고질적인 3대 문제가 지속하고 있다"며 "2024년에도 저성장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도산업 비박 짝었지만, 전체 제조업 중 부진은 여전히=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4분기 실적이 올해 반등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일반 제조업종은 생산량 감소가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 업종은 오히려 생산이 3분기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제조업 생산지수(계절 조정)는 전분기보다 1.6% 상승했다. 제조업 생산은 2022년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감소했지만,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면서 지난해 2분기부터 3분기째 증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은 엔데믹 이후에도 부진이 거듭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제외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보다 0.9%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 반짝 증가(1.2%)했지만 2분기부터 다시 3개 분기 연속 뒷걸음질 쳤다.

지난해 1분기까지 부진했다가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2분기 이후 생산 증가세가 확인한 전체 제조업 생산과 대조된다.

수출 감소로 인한 화장품 등 화학제품 생산 위축과 1월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에

따른 생산 지연 등이 지난해 12월 '반도체 제외' 제조업 생산 감소에 영향을 줬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이자 부담에 중처법 비용 증가, 전기세 인상까지 '첩첩산중'=중소기업 경영환경의 장애물인 금리는 올해 언제 인하될지 기약할 수 없고, 한국전력 적자 해결을 위한 전기세 인상, 국제 유가 불안과 고환율 등의 악재가 겹겹이 쌓여 있다. 게다가 최근 중소기업계가 우려하는 중처법의 유예 법안 입법이 불발되면서 적지 않은 비용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에도 부진한 내수시장은 중소기업들의 경영 악화 환경 1순위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024년 경제전망과 중소기업 이슈" 보고서에서 "민간소비는 2023년 3분기를 저점으로 회복 전환됐지만, 2024년에는 가계소비 여력의 감소 등으로 인해 상승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경기부양 여력 감소도 성장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예산 규모와 총지출 증가율이 과거 대비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정부 총지출 규모는 657조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2.8% 수준으로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연구원은 "2023년 3분기 정부지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0.2%까지 하락하는 등 국내 경제 성장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이자 증가도 중소기업으로선 부담이다. 올해 상반기 기대하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당분간 가중될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지난해 2월(5.45%) 이후 9개월만의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2022년 10월(연 5.49%) 이후 14개월 연속 5% 선을 웃돌고 있다. 평균 5% 이상의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진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중소기업 대출 중 금리가 5% 이상인 비중은 64.6%에 이른다. 이 비중이 과반인 현상은 2022년 10월 이후 14개월 연속 지속하고 있다. 김우람 기자 hura@

“글로벌 진출, 선택 아닌 필수... 중소기업 역량 강화 힘 쏟을 것”

정부, 중소기업 살리기 총력

상반기내 '글로벌화 전략' 수립 글로벌 이슈 대응 예산 2배 확대 물류비는 최대 2000만원 지원

경영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중소기업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진출에 답이 있다고 보고 상반기 내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취임 후 "글로벌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해왔다.

중기부는 올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탄소중립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138억 원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확대했다. 중소기업 중심

의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전환(DX)을 위해 2027년까지 2만5000개 스마트 공장을 추가 구축·지원할 예정이다.

오장관은 최근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통해 "내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키워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것이 중소기업에 정말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먼저 말씀해 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내수를 넘어 수출까지 갈 수 있도록 더 탄탄한 전략을 고민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은 올해 수출국 다변화 지표에 대한 평가비중을 30%로 확대했다. 지난해 수출바우처 참여 후 새로운 국가로 수출에 성공한

기업에는 바우처 지원한도를 20%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또 항공·해상 운송료, 국제복합 운송료 등 물류비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해 각 분야 수출 유망기업을 공동 발굴·지원하는 '부처협업형 수출바우처' 사업도 확대한다.

올해도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를 시행해 전년도 수출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정한다. 20여 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정책자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우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수출 회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고질

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할 계획이다.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허용 기간을 확대하고 전문 분야의 인턴 활동도 허용할 예정이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약 5조 원 규모다. 용자 4조4632억 원, 이차보전 4943억 원으로 구성됐다.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1조9958억 원 규모다. 성장기 중소기업을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4174억 원, 신성장기반자금은 1조7250억 원 규모로 마련됐고, 중소기업의 재도약지원자금은 5318억 원으로 책정됐다. 또 긴급경영안정자금 1500억 원, 밸류체인안정화자금 1375억 원 등을 공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혁신역량을 갖춘 기업

이 일시적 위기에 방치돼 부실화되지 않도록 구조개선 지원체계를 전면 검토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은행과 협력해 일시적 위기를 겪고 있지만, 성장잠재력 있는 기업을 선별하고 구조개선 계획 수립, 구조개선 자금 등을 지원하는 '선제적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나해에는 총 170개사에 2231억 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민간 금융권 협업을 확대해 성장잠재력 기업 선별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 다각화와 문턱 완화로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오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을 확대하고 구매 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내수와 판로 확대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Samsung
Financial Networks

삼성생명

누구보다 멋진 경력.

삼성생명 FC

당신은 열심히 회사를 다녔었고,
그 마음, 그대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가정의 재정을 다뤄본 경력,
모두의 건강을 늘 챙겼던 경력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디 마디, 필요한 것을 아는 당신
당신의 경력은 훌륭합니다.
FC에 도전하세요!

본 광고는 임직원 채용이 아닌 컨설턴트 모집용 광고임

준법감시필 23-1101 (브랜드광고파트, 2023.5.30 ~ 2024.5.29)



삼성생명 FC
지원상담문의

‘전공의 파업 보류’에 한숨 돌린 정부... “대승적 결단을”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던 의료계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정부는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다만 전공의들이 언제든 집단휴진과 같은 총파업이나 집단사직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공의들이 수련 재계약 거부 등 법적 테두리 내에서 투쟁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진행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했다. 대전협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보고하면서도, 향후 집단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전공의들이 우선 ‘신중 모드’에 접어들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그동안 대전협이 여러 차례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체제 전환 외에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 대응’ 기조를 밝힌 것도 무관치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퇴사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고자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내렸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꾸려 현장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수본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강경 기조를 유지할 것을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겠

정부 “집단행동 강경 대응”에
12일 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
비대위 체제 의결 ‘신중 모드’
복지부 “행동방향 확인 안돼 주시”
일각선 “법적 테두리 내서
집단 휴진·사직 등 가능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는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공의들이 당장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을 뿐, 비대위 체제 전환과 함께 언제든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사실상 준비 태세를 갖추고 분위기를 달구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집단 휴진이나 사직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공의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의대 증원 반발 의사를 표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일부 인턴은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이달 말로 예정된 수련교육 종료 후 다음 단계인 레지던트 과정을 밟지 않고 병원을 떠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레지던트 과정이 끝나 전임의 계약을 앞둔 전공의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턴은 1년, 진료과목을 정한 레지던트는 3~4년의 수련기간을 명시해 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있다. 각각의 수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병원과 ‘재계약’하지 않는 방식을 검토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상황도 이미 검토해왔으며,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1년 단위가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 전체 수련기간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행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지지 않도록 계속 설득해서 함께 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7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3명 중 1명 외국인

고용부, 1월 노동시장 동향

전년 동월비 34.1만명·2.3% 늘어
고용허가제 영향 외국인 37% 달해

고용보험상사가입자(상사·임시직) 증가 폭이 7개월 만에 반등했다. 증가한 가입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외국인노동자 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사 가입자는 1505만8000명으로 작년 동

월 대비 34만1000명(2.3%)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작년 6월 37만5000명에서 작년 12월 29만7000명으로 6개월 연속 줄다가 지난달 반등했다. 지난달 늘어난 가입자의 37.0%에 해당하는 12만6000명은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노동자다.

외국인 가입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확대되고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노동자는 22만2000명이다.

전체 고용보험가입자증감을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 가입자는 23만5000명 늘어난 103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돌봄 수요 증가와 대면 활동 정상화로 보건복지업은 11만4000명, 숙박음식업은 4만명 늘어났지만, 민간 소비 둔화와 부동산 경기 악화로 도소매업은 1만8000명, 부동산업은 2000명 감소했다.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설업 가입자는 2000명 줄어든 77만5000명이다. 제조업 가입자는 382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8000명(2.6%) 증가

했다. 제조업 중에서도 금속가공업(2만5000명), 식품공업(1만3000명), 기타 운송장비(1만2000명) 등은 가입자가 늘었고, 전자통신업(4000명), 섬유제품업(3000명) 등은 가입자가 줄었다. 외국인 노동자를 제외하면 전체 제조업 가입자도 1만1000명 감소했다. 내국인 제조업 가입자감소세는 작년 10월부터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인구감소영향을 크게 받는다. 20대, 40대가 각각 4만7000명, 6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감소세는 17개월째

다. 나머지 연령대는 가입자가 늘었다. 증가 폭은 60세 이상(19만7000명), 50대(12만5000명), 30대(7만2000명) 순으로 컸다.

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2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3000명(7.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9391억원으로 926억원(10.9%) 늘었고, 수급자는 3만3000명(5.7%) 증가한 61만4000명이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구인 배수는 지난달 기준 0.46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46개를 두고 구직자 100명이 경쟁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50+세대 고품격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2월호 발매



BRAVO SPECIAL 즐거운 나이 들, 웰컴 에이징

- PART 1. 나이 들수록 행복한 삶 '마음 나이'로 살기
- PART 2. 20년 천천히 나이 드는 법
- PART 3. 퍼스널 컬러·메이크업으로 아름다운 '나다움'
- PART 4. 나쁜 다이어트에서 탈출, 숫자 아닌 몸을 치료하라
- PART 5. 노화 늦추고 신체 대사 높이는 운동법



BRAVO INTERVIEW



배우정찬
젊음의 질주는 계속된다



김장권 복춘HRC 대표
"한옥은 오래된 미래"
회한 소급해주는 집 짓는 건축가



레시피 간고등어찜과 꼬막전

법률 가이드
효도와 상속·증여,
가족 간 사랑과 법의 교차점



브라보 여행 겨울엔 섬이다, 신안섬 이야기



귀능귀촌
남들은 뜰어말렸지만
얻을 건 다 얻었다



하방비책 겨울철 원인 모를 어지럼증, 뇌졸중 전조 의심해야



지역문화유산순례기
강직하지만 속은 좁았던
사람의 넋을 찾아

與, 공천 면접 돌입... 인력 재배치·중진 희생 ‘촉각’

서울·제주·광주 지역 공천면접 이영·이혜훈·하태경 '3파전' 중·성동을 인력 재배치 가능성 조해진, 김해을 출마... 협지 수용

국민의힘이 새간 이어질 공천 신청자 면접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호남 지역을 대상으로 첫 면접에 돌입하면서 공천 신청이 몰린 지역에 대한 인력 재배치, 중진 희생 등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3일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서울·제주·광주 지역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다. 각 후보마다 5분 안팎의 짧은 시간이 주어졌고, 두세 개 정도의 질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첫 공천 면접이 진행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공천 신청이 몰린 지역구의 인력 재배치 △중진 의원에 대한 당의 헌신(협지출마) 요구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 공천 등에 이목이 쏠렸다. 특히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날 전·현직 의원 3명이 출사표를 던진 서울 중·성동구의 인력 재배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해당 지역 공천 신청자들 사이에선 묘한 신경전이 감지됐다. 중·성동구는 하태경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전·현직 의원 3명이 공천 신청을 한 곳이다.

앞서 정 위원장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서 “동일한 지역에 우리 인력들이 몰린 경우에는 좀 재배치해서 승리해야 될 것 같다”며 중·성동을 지역에 대해 “거기도 고려 대상”

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이 일부 중진 의원들에 헌신(협지출마)을 요청하고 있는데 대해선 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동대문구에 공천을 신청한 김경진 전 의원은 “(인요한) 혁신위원회에서 크게 주장했던 게 ‘희생’과 관련된 부분이다. (공관위가) 그 부분에 대한 맥을 잡고 있고, 공천을 신청하신 분들도 당 지도부의 뜻에 잘 따라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말 혁신위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당시 혁신위는 당에 ‘주류(진윤·지도부·중진) 희생’을 혁신안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김 전 의원은 그것이 “잘 작동하고 열매를 맺고 있다”고 반응한 것이다.

3선 중진 출신인 김영우 전 의원은 “제 경험상 영남 중진 의원들을 수도권에 어렵다고 해서 전략공천을 내리놓으면 필패라고 본다”며 “(그런데) 당에서 전략을 잘 짜고 있다. 중진들이 ‘권역’ 내에서 옮기고 있다. (중진들이 옮긴 지역구에서도)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석을 얻는 셈이다. 좋은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선 결국 수도권(이 중요하다)”며 “다선 의원은 새로운 각오를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 서병수·김태호 의원에 이어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도 이날 ‘협지 수용’ 3번째 주자로 나섰다. 그는 “당은 제가 김해을에 출마해 현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물리치고 의원직을 확보할 것을 희망했고, 저는 숙고 끝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은재 기자 silverash@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4·10 총선 공천 신청자 면접에서 서울 중구 성동을 예비 후보자인 이영(왼쪽부터)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혜훈 전 의원, 하태경의원이 공천심사를 받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어르신 챙기자”... 여도 야도 ‘老심초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경로당 무상점심 제공 등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으며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다만, 양당 모두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유권자의 31%에 달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공략하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2일 ‘실버타운’ (노인 복지주택) 공급을 늘리고,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총선 공약을 공개했다.

여당은 실버타운의 승인·건축과 관련한 절차 및 규제를 재정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실버타운 공급을 대폭 늘리고, 당초 2027년까지 총 5000호를 조성하기로 한 국토교통부의 취약 어르신 주거 복지 사업 ‘고령자복지주택’을 2만 호로 대폭 상향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도 2027년까지 전체 노인 인구의

전체 유권자 3분의 1이 ‘60세 이상’ “경로당 무상점심” “서민 실버타운” 재원 마련 계획은 밝히지 않은 채 앞다퉈 고령층 대상 공약 쏟아내

10%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6일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늘리고, 간병비를 급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어르신 든든 내일’ 1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고령층 관련 공약을 두 번에 걸쳐 발표한 것에 대해 “어르신만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현재와 미래에 연결된 중장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연말부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총선 공약을 내놓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총선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적용

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같은 해 12월에는 최소 주 5일 경로당 점심 제공을 공약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수치스러운 통계도 실제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력과 경제 수준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만큼 부족하지 않은 것 같고, 국가 의지에 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앞다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공약을 내놓고 있는 데에는 올해 총선에서 60대 이상 유권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투표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 인구(약 4425만 명) 중 60세 이상 인구는 약 1399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31.6%에 달한다. 이는 20대와 30대 인구를 합친 1274만 명(28.8%)보다도 많은 수치로, 총선에서 60대 이상 유권자가 2030세대를 역전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정대현 기자 vishalist@

尹 “저출산 극복기업에 세제 혜택 등 지원”

기업의 자발적 출산 지원 활성화 부영그룹 출산장려금 70억 지급



다. 이를 두고 기업이 저출산 해소에 자발적으로 나선 공익적 취지를 살리면서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일부 기업들이 대규모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는데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소경 대변인이 전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9명이다. 추계에 따르면 2025년 0.65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출산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지급한 기업의 대표 사례는 부영그룹이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 (50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35% (1억5000만원 이하), 38% (1억5000만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가령, 기본연봉 5000만원이라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대략 3000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증여 방식이라면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000만원만 납부하면 된

다. 이를 두고 기업이 저출산 해소에 자발적으로 나선 공익적 취지를 살리면서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7일 오후 방영된 KBS 신년 대담에서 “대통령의 중요한 헌법상 책무가 바로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가시적인 저출산 성과를 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일단 합계 출산률 1.0(명)을 목표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12일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촉하기도 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인선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공직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기는 데 정평이 난 정책전문가”라면서 “오랜 경륜과 풍부한 경제·사회 분야 정책 조정 경험, 탁월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총괄 주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하위 20%’ 31명 개별 통보... 민주당 비주류 ‘짐 쌀 준비’?

최대 30% 감점... 사실상 컷오프 탈당 땀 제3지대 합류 가능성 잔류 후 차기 전대 준비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 31명에게 결과를 개별 통보하기 시작했다. 최하위 10%는 경선 득표 30% 감산(나머지 20% 감산)을 받는다.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에 가까운 페널티인 만큼 상당한 잡음이 불가피하다. 비명(비이재명)계 등 비주류가 하위 명단에 대거 포함될 경우, 탈당 후 제3지대에 합류하거나 당에 남아 전당대회에 나서는 시나리오 등이 제기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인 이날부터 평가 하위 20% 의원에게 결과를 전달하기 시작했다.

일단 하위 20%에 포함되면 20~30% 감산이 확정되는 만큼 총선 준비에 나선 의원들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선 상대가 10~25% 가산을 받는 여성·청년·신인 등이라면 하위 20% 의원이 감당해야 할 실질감산 폭은 더욱 커진다. 일부 의원들은 해당 명단을 아는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조성식 사무총장 등에게 자신의 하위 20% 포함 여부를 물밑에서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위 20% 성적표를 받은 의원들은 탈당과 잔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선거법상 경선에 참여했다가 탈락하면 동일 지역구 무소속 출마 길은 봉쇄된다. 최근 제3지대 빅텐트’를 꾸린 개혁신당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공동대표로 있는 만큼 차선으로 신당행을 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민주당 한 의원은 “결과가 뻔한 경선보

다 개혁신당에서 출마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대선 패배로 국민의힘에 정권을 넘겨준 만큼 내각·공공기관 등 후회로를 제시하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신을 명지대 교수는 “여당은 낙선해도 갈 데가 많은 반면 야당은 낙선 다음이 없다. 있어봤자 미래가 안 보인다면 탈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잔류 후 차기 전당대회 등 총선 이후를 준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차선적인 개혁신당에 이낙연 공동대표뿐 아니라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이준석 공동대표가 당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부담 지점이 다. 민주당 관계자는 “친문 핵심들이 컷오프된다고 해도 탈당까지 하진 않을 것”이라며 “부당한 이유라면 반발은 하겠지만 당에 남아 전당대회를 준비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정호영 기자 moonrise@

“美 대선, 한국엔 위기이자 기회… 통상 환경 선제대응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트럼프, 中제품 관세 부과 검토에
美 수출 비중 높아 불확실성 커져
바이든 자국중심 통상질서 강화
中 경제둔화 겹쳐 대미 수출 호조
“일반관세율 인상 등 비상책 마련”

우리 정부가 올해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질서 변화에 주목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자국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수출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팬데믹·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미국과의 교역 증가·향후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질서 변화 주목’이란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 관점에서 위험과 기회가 공존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미국 대선 결과가 글로벌 통상질서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

졌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자국 중심 통상 질서를 더욱 강화하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글로벌 성장·교역의 구조적 하방 요인이 될 전망이다”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우리 수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대목이다. 다만 미국이 자국 중심 통상 질서를 보다 강화하면 우리나라의 대(對) 미국 수출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지난해 대미 수출은 역대 최대인 115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 이어 제2의 수출시장이 됐다. 반면 중국 경기둔화로 중간재를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은 부진했다. 그 결과 대 미국·중국 간 수출 비중 격차는 2021년 10.4%, 2022년 6.7%, 2023년

1.4%로 대폭 줄었다. 보고서는 “코로나 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고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중국 경제 둔화가 맞물리면서 중국과 교역이 약화됐고 미국과의 교역은 강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대 이상으로 견조한 미국 경기와 공급망 재편 효과가 대미 수출 호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중국의 내수 침체로 감소세를 지속해온 대중 수출이 올 1월 들어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된 점도 올해 우리 수출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보고서는 올해에도 수출 호조에 따른 회복 국면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거시 환경 변화와 통상질서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보고서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점검·대응해야 하며 일반관세율 인상,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축소 등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역외수지 개선에 정책적 역량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속소·교통·먹거리·놀거리·지급수단 등 대상별로 서비스수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무역수지의 불안정성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농촌 빈집 숙박업’ 특례적용 2년 늘린다

농식품부·과기부 ‘샌드박스’ 연장
2026년 1월까지… 규제조건 완화
“관광 인프라 개발 우선돼야” 지적

정부가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에 대한 특례 적용을 2년 더 연장했다. 여러 규제를 완화하면서 인구 소멸에 대응한 세컨드홈 정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농촌 관광 인프라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26년 1월까지 연장했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농어촌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다. 현재 빈집재생스타트업인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돼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해 운영

하고 있다. 당초 이 실증특례를 바탕으로 신산업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법과 제도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제주도 외 지역에 대한 실증사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정부는 특례기간을 연장했다.

이번에는 사업확장에 제약이 되는 부분도 함께 완화하고 나섰다. 실증범위는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로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된 농촌 소멸위험지역에서는 500채 이내 확대 시행이 가능하다. 영업일 수 300일 제한도 폐지한다.

또 단독주택만을 인정했던 ‘농어촌 주택’ 기준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에 따라 주택과 함께 창고나 축사 등 건축물도 포함된다. 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농어촌민박사업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230㎡ 미만으로 적용한다. 기존 사업방식은 장기 임대한 빈집을 재생했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소유주에게 반납해야 했지만 사업 개시 이후 2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특례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정부의 ‘세컨드홈’ 정책과 시너지 효과

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혜택을 준다는 정책을 내놓은 상황이다. 다만 이번 규제 특례가 숙박업 확대에 그칠 수 있어 관광객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시골을 힐링, 촌캉스의 공간으로만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 숙박업 관계자는 “관광객이 와서 숙박을 하는데 여전히 농촌 관광 개발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농촌 숙박업이 활성화 되려면 관광 명소가 있어야 하고, 접근성이 좋아지도록 도로와 인프라 등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숙박업자만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관광 콘텐츠가 없으면 말 그대로 잠만 자고 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농업계 전문가는 “도시민이 농어촌으로 와서 체험하고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며 “농어촌 관광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관세청, 주류 면세 한도 확대 검토

관세청이 주류 면세 한도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1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구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관세청은 이날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해외 여행자가 양주 등을 구매할 때 추가로 받는 미니어처 등은 면세 수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관세청이 주류 면세 한도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1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구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관세청은 이날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해외 여행자가 양주 등을 구매할 때 추가로 받는 미니어처 등은 면세 수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세무조사, 작년 수준으로… 1만4000건 이하 유지

국세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영세 사업자 세금 납부 연장 가능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었던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동시에 연장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3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유사한 1만4000건 이하로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해 세무조사 규모는 1만3992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적었다. 세무조사는 2019년 1만6000건을 기록한 뒤 매년 축소되는 추세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현재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

라며 “조사 규모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갑자기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축소된 작년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하고 불법사채·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생활밀착형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적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도 엄정 대응한다. 악의적 체납자를 추적하는 세무서 전담반은 19개에서 25개로 확대하고 체납자 관련 공개 대상 정보를 확대하는 등 행정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중도 퇴사자 지급명세서(청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장애인) 등 특정 계층을 위한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는 등 연말정산 서비스도 지속해서 개선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상담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시범 도입하는 등 국제 상담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상대로 세목별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기가 2개월 직권 연장되는 사업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납기도 3개월 연장된다. 일시적인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 조치도 최대 1년간 유예된다. 정기조사·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자리 창출 기업 등도 추가로 발굴한다. 세무검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투자 확대 요건은 전년 대비 ‘10~20% 이상’에서 ‘5~15%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성장 세정 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 1만2000곳을 추가한다. 미래성장 세정 지원 대상은 납부기한 연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사 전심사 우선 처리 등 혜택을 받는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미래 산업의 쌀’ 탄소소재에 1000억 투자

정부, 공급망 안전성 높일 계획
‘K-카본 플래그십 사업’ 본격화

정부가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리는 탄소소재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5년간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미래전략산업 초격차를 확보하고 첨단소재의 공급망 안전성도 높인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주항공산업과 방위산업 등 핵심 수요산업에 사용되는 탄소소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케이카본(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사업’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탄소섬유, 인조흑연 등 탄소소재는 낫실타 등 생활용품부터 우주선, 연료전지 등 첨단전략산업까지 적용 분야가 무궁무진해 철강 등 기존 소재를 대체할 ‘미래 산업의 쌀’로 평가받는다.

그간 정부는 탄소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2022년 ‘탄소 복합재 경쟁력 강화 전략’ 등을 추진해 왔으며,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해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 올해 국비 124억 원 투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1046억 원(국비 785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방산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라이프케어 △건설 등 5대 핵심수요산업에 사용될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소재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과 함께 먼저 착수한 ‘탄소 산업기반 조성’, ‘고성능탄소나노복합섬유 기술개발’ 등의 사업추진을 통해 경쟁력 확보와 함께 전방산업의 초격차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여행 후에는
잠만 자던
트래블 카드

이제
안녕

2024.2.14

새로운 트래블카드의 시작



SOL트래블 체크카드

※(주)신한은행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대상 금융기관이며, 신한카드는 부보대상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별도의 법적 계약이 없는 한 신한금융그룹내 계열사는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본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신한은행 준법감시 심의필 제2024-10524-1호(2024.02.08~2025.02.09) / 신한카드 준법감시 심의필 제20240208-Dpn-001호(2024.02.08~2025.02.07)

日 증시도 'AI 훈풍'... 34년 만에 장중 3만8000선 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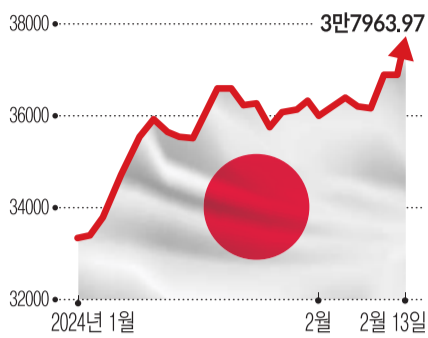
하루 만에 1066p 급등

3거래일 연속 34년來 최고 기록
호실적 도쿄일렉트론 13% 폭등
반도체·보험·수출 관련주 강세
버블호황 최고치 3만8915 바짝

일본 증시가 파죽지세로 치솟으면서 34년 만에 또다시 최고치를 다시 썼다. 장중 한때는 3만8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에 바짝 다가섰다. 미국에서 불고 있는 인공지능(AI) 훈풍이 일본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했다.

13일 일본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날 휴장 후 다시 문을 연 일본 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오전부터 파죽지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 *출처:마켓워치



세로 오른 끝에 전 거래일 대비 1066.55포인트(2.89%) 급등한 3만7963.97에 장을 마감하면서, 거품 경제 시절이던 1990년 1월 1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닛케이지수는 8일부터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34년 만의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일일 상승 폭 기준으로는 2020년 3월

25일 이후 3년 11개월 만에 최대다. 장중 한때는 34년 만에 처음으로 3만8000선을 넘어서며 1989년 말 기록한 역대 최고치 3만8915에 바짝 다가서기도 했다. 닛케이지수는 앞으로 약 2.45% 더 오르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된다.

간밤 미국 증시 훈풍을 이어받아 일본 주식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가 강해졌다. 미국에서는 견조한 경제 지표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이에 따라 도쿄증시에서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렸다. 특히 9일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예상 실적을 상향 조정한 도쿄일렉트론 주가가 폭등하면서 상승장을 주도했다. 이날 도쿄일렉트론은 주가가 13% 이상 폭등하면서 개별 종목만으로도 닛케이

지수 평균을 380포인트 이상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다. 중국의 비침단 분야 투자 확대와 AI 수요 강세가 호재로 작용했다. 이 밖에도 어드밴티스트, 레이저테크 등 주요 반도체 종목이 3%대 상승했다.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그룹도 산하 영국 반도체 설계기업 ARM의 주가 상승 영향을 받아 6.3% 뛰었다.

도쿄해상홀딩스, MS&AD, 손해보험 업체 솜포(SOMPO) 등 보험주가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한 것도 닛케이지수를 끌어올렸다. 일본 금융청이 대형 손해보험사 4곳에 교차지분 정리를 가속화하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이날 나왔다. 교차지분 정리 추진과 함께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투자자가 몰렸다. 도쿄해상홀딩스는 한때 11% 상승하면서 상장 이래 최고치

를 기록했다.

엔화 약세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수출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다.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장기화 관측을 배경으로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49엔대 중반을 나타내 심리적 저항선인 150엔선에 근접했다. 일본 수출을 선도하는 도요타가 4%가량 상승했다.

필립증권의 마스자와 다케히코 주식부 트레이딩 대표는 "주력 종목의 호실적이 눈에 띈다"며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전개'가 펼쳐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미오카 히로시 T&D에셋매니지먼트 전략가는 "일본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이 계속되고 있다는 인식이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선 기자 hsbun@

머스크, 이번엔 X 불법인수 의혹

美 증권거래위, 공시법 위반 조사
블룸버그 "머스크 리스크 극에 달해"
반유대주의·마약 투약 등 압박

미국 연방법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에게 엑스(X·옛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제기된 공시법 위반과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환조사에 응할 것을 명령했다. 이보다 앞서 반(反)유대인 정서·마약 투약 혐의·X 광고 매출 급감·테슬라 주가 급락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머스크 리스크'가 극한에 이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로렐 빌러 판사는 전날 SEC가 머스크에게 '소환조사 출석'을 명령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SEC 손을 들어줬다. 빌러 판사는 "머스크가 SEC의 면담 조사에 직접 나와 증언해야 한다"며 "일주일 안에 양측이 만나 면담 날짜와 장소를 정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SEC는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증권법과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놓고 조사를 벌여왔

다. 그러나 머스크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해 10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에는 마약 복용 혐의마저 불거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전·현직 이사와 함께 파티를 즐기면서 불법 약물을 복용했다며 마치 왕처럼 행세하면서 마약 복용을 압박하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X의 광고매출 감소도 실질적인 머스크 리스크로 꼽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주요 광고주들이 아동보호 정책에 미온적인 X를 등지기 시작하자 머스크는 광고주들에게 "돌아와 달라"고 요청 중이다.

머스크의 '반(反)유대주의' 성향도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11월 반유대주의 음모론을 담은 X 사용자의 글에 머스크는 동조하는 댓글을 올렸다. 논란이 거세지면서 머스크는 곧바로 이스라엘을 방문해 후폭풍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머스크 리스크는 그의 회사가 실적 부침을 겪는 상황에 기름을 붓는 셈이 됐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도 전 거래일 대비 2.8% 급락해 올 들어 하락 폭을 24.3%로 확대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인도 농민 집회 막으려 뉴델리행 고속도로 봉쇄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가지푸르에서 13일(현지시간) 경찰이 수도 뉴델리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콘크리트 바리케이드와 철조망으로 차단하고 있다. 인도 200여 개 농민조합 소속 농민들은 이날 약 1만5000대의 트랙터를 동원해 수도에 진입,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농민들은 인도 정부가 2021년에 합의한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와 농가 부채 면제 등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뉴델리와 인근 몇몇 도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금지했다.

가지푸르(인도)/AFP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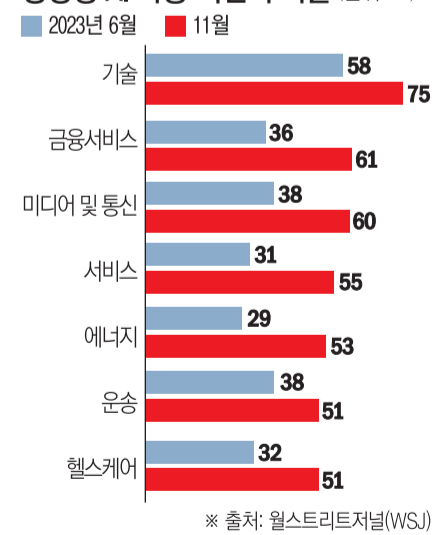
AI로 대체된 美 화이트칼라 최소 4600명

듀오링고 "AI 활용해 콘텐츠 제작"
미디어·기술직 중심 해고 확산
중간관리직 사라질 거란 분석도

자동차가 제조업 일자리를 빼앗기 시작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인공지능(AI)이 화이트칼라 일자리를 본격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새해 들어 IT 업계에 포함해 교육, 운송 등 산업 전반에서 정리하고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AI로 인해 사라진 일자리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경종을 울렸다.

인사관리 컨설팅회사 '첼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이하 첼린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이후 미국에서만 미디어와 기술 분야 중심으로 4600명이 이상이 AI로 인해 해고됐다. 많은 기업이 해고 발표에 'AI 도입으로 인한 감원'을 명시하지 않아 실제 AI로 인한 일자리 삭감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지난달 비용 절감 및 AI 개발 투자를 위해 수백 명의 직원을 집으로 돌려보냈

미국 내 일주일 한 번 이상
생성형 AI 사용 직원의 비율 (단위: %)



*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다. 온라인 외국어 학습 플랫폼 듀오링고도 계약직 직원 10%를 해고하며 "이들이 담당하던 콘텐츠 제작 업무 중 일부를 AI가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 부문은 물론 다른 산업에서도 AI에서 비롯된 인력 감축이 시작됐다. 미국 최대 물류업체인 UPS는 지난달 "관리직과 계약직 직원을 중심으로 1만2000명을

해고할 예정"이라며 "생성형 AI와 관련 기술 사용으로 업무에 필요한 인력이 줄었다. 사업이 다시 회복되더라도 일자리를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상 업무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전문가 수도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매니지먼트 컨설팅업체 올리버와이먼포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1만 5000명 이상의 사무직 근로자가 "생성형 AI 기술을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사용한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금융서비스업 종사자의 응답 비율이 지난해 5월 36%에서 지난해 11월 61%로 크게 뛰었다.

생성형 AI의 도입은 중간 관리직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리버와이먼포럼은 "업무 자동화에 따라 연차가 낮은 직원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미래의 신입사원 업무는 고위 관리직의 것과 비슷해질 것이다. 이러한 연쇄 효과는 중간 관리직 계층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위 관리자의 절반 이상은 "자신의 업무가 생성형 AI로 자동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이현 기자 cahyun@

네덜란드에 묶인 이스라엘 스텔스기 부품

가자 라파 공격에 수출 중단 명령
바이든 "최소 6주간 휴전 추진 중"

서구권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본격적으로 공세를 펼치는 이스라엘에 대한 고삐를 죄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소 6주간의 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네덜란드 법원은 자국 창고에 있는 스텔스 전투기 F-35 부품의 이스라엘 수출 중단 명령을 내렸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연일 "피란민 안전이 보장되기 전까지는 절대 라파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의 회담 후 브리핑에서 "가자지구의 인질들이 풀려나고 인도주의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협상은 이스라

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최소 6주 동안 전투를 중단하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라파에서의 군사 작전은 그곳에 있는 100만 명 이상의 피란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 없이는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 법원은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네덜란드 고등법원은 이날 "이스라엘의 F-35 전투기가 국제 인도주의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범죄에 사용될 명백한 위험이 있다"며 정부에 F-35 부품의 이스라엘 수출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부품은 미국 소유이지만, 네덜란드 비축 창고에서 이스라엘 등 관련국 요구에 따라 수출이 이뤄져 왔다.

전이현 기자 cahyun@

설비전환 마친 현대차 아산공장... 본격 전기차 신차경쟁

두달반 만에 생산 재개

현대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전기차 라인업 확장에 나선다.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전기차 판매량을 늘릴 계획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날 아산공장의 설비 공사를 마쳤다. 아산공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기차 생산을 위한 설비 공사에 들어가 약 두달반 만에 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부터 생산을 재개한다.

기존에는 아산공장은 그랜저, 쏘나타, 아이오닉 6 등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모두 생산했다. 이번 설비 전환을 통해서도 전기차 생산을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현대차는 설비전환을 마친 아산공장에서 자사 최초의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아이오닉 7'을 생산할 계

13일 전기차 설비 공사 마치고 첫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 7' 시험 생산 거쳐 하반기 중 양산

경형-대형 소차급 라인업 갖춰 소비자 선택지 넓혀 수요 확보

획이다. 아이오닉 7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활용한 세 번째 아이오닉 시리즈다. 올해 상반기 중 시험 생산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전망이다.

현대차는 올해 하반기부터 아이오닉 7은 물론 경형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 등을 출시하며 전기차 라인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한다.

현대차는 현재 코나 일렉트릭(준중형), 아이오닉 5(준중형), 아이오닉 6(중형)



현대차의 첫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 7의 콘셉트카 '세븐'.

사진제공 현대차

등 준중형·중형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제네시스 브랜드를 포함해도 GV60(준중형), GV70 전동화 모델(중형), G80 전동화 모델(준대형) 등 대부분 중형 차급에 걸친 전기차 판매 중이다.

올해 경형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 대형 전기차 아이오닉 7 등이 출시되면 현대차는 경형부터 대형을 아우르는 전기차 선택지를 확보할 수 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한 만큼 소비자의 선택지를

늘리며 수요 발굴에 나서는 모습이다.

같은 그룹사인 기아도 비슷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기아는 광명 오토랜드를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지난달 마무리했다. 이곳에서는 기아의 기존 전기차보다 작은 EV3(소형 SUV), EV4(준중형 세단) 등 보급형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전기차 선택지를 늘리고 판매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양사는 지난달 컨퍼런스콜을 열고 올해 전기차 판매 목표로 각각 30만 대, 27만2000여 대를 제시했다. 전년도 판매량 대비 현대차 11.6%, 기아 50% 늘어난 수치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이오닉 7, 캐스퍼 일렉트릭은 기존에 현대차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차급의 전기차"라며 "신차를 통해 소비자 선택지를 늘리고, 이것이 판매량으로 연결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재 기자 2mj@

“차세대 AI 반도체 알려라” 특명



삼성전자 경계현 'MWC 2024' 출동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24'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참가해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반도체 기술력 알리기에 나선다. 경계현(사진) 삼성전자 대표이사(사장)가 직접 MWC 2024가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찾아 전 세계 주요 IT기업들과 연쇄 회담을 할 전망이다.

1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사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26~2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24에 고객 미팅용 프라이빗 반도체 부스를 마련한다.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부문이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부스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DS 부문은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프라이빗 부스를 마련해 직접 영업에 나선다.

지난해 챗 GPT의 탄생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AI 폭풍이 몰아치면서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저장할 수 있는 AI 메모리 가치가 급증하고 있다.

먼저 삼성전자는 AI 시대를 이끌 초고 성능 메모리인 HBM(고대역폭메모리) 3E D램 '샤인볼트(Shinebolt)'를 선보인 다. 올 상반기 본격 양산되는 이 제품은 30

MWC에 반도체 고객용 부스 마련 직접 고객 미팅 나서 기술력 홍보

GB 용량의 UHD 영화 40편을 1초 만에 처리할 수 있다. 이미 주요 고객사에 HBM3E 8단 샘플 제품을 공급했으며 올해 상반기 내에 양산 준비가 완료될 예정이다.

HBM과 함께 AI 시대를 이끌 쌍두마차로 불리는 컴퓨터익스프레스링크(CXL) D램도 공개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CXL 2.0을 지원하는 128GB CXL D램을 개발한 바 있다.

CXL은 AI,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로 다른 기종의 제품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차세대 기술 규격이다. 메인 D램과 공존하면서 시스템의 메모리 용량을 거의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다. AI 시대에 CXL이 HBM과 함께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메모리 제품 외에도 고성능 게임 유저를 위한 차세대 모바일 프로세서와 파운드리 업계 최첨단 3나노 게이트웨이라운드(GAA) 기술력도 선보일 계획이다. GAA는 반도체 미세화의 한계를 돌파할 신기술로 꼽힌다.

이번 MWC에는 경계현 사장이도 참석해 고객과의 미팅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샘 올트먼이 일으킨 AI 반도체 열풍 속에서 전 세계 업체들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다.

앞서 지난달 26일 샘 올트먼은 삼성전자 팹릭 캠퍼스를 방문해 직접 반도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경 사장 등 반도체 부문 주요 경영진들과 협업에 관해 논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뒤져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경 사장이 직접 발로 뛰며 역전을 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영록 기자 syr@

LS일렉에 손내민 MS...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협력 강화”

6일 LS일렉 찾은 MS 경영진 구자균 회장과 비즈니스 미팅 지난해 MOU 구체적 방안 협의

마이크로소프트(MS) 주요 경영진들이 구자균 LS일렉 회장을 찾았다. LS일렉과 MS와의 스마트팩토리 분야 협력 체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1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 6일 도미니크 위 MS 제조·모빌리티 부문 기업 부사장과 사지 쿠마르 MS 비즈니스 리더가 LS일렉 본사에 방문해 구 회장 및 LS일렉 주요 경영진들과 비즈니스 협력 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스마트팩토리 분야 고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MS의 자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 등 제조 솔루션과 LS일렉의 스마트팩토리 및 에너지 절감 솔루션의 활용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LS일렉 관계자는 “구체적인 회의 내용에 관해 밝힐 수 없다”면서도 “MS와는 예전부터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지난해 4월 19일(현지시간)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 MS 전시관에서 ‘스마트팩토리, 에너지 기반 신사업 공동 개발·기술검증’을 위한 양해각서(MOU

)를 맺은 바 있다. 구동휘 LSMnM 최고 운영책임자(COO) 부사장(당시 LS일렉 대표이사 부사장)이 참석했다.

당시 양사는 △지능형 공장을 위한 대표 시나리오별 데이터 연결성 검증 △생산 설비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인사이트 확보 △생산라인 전력 효율성 분석 등 스마트팩토리 분야에서 폭넓게 협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실행시스템(MES)·품질관리시스템(QMS)·창고관리시스템(WMS) 등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이 불량품, 품질 발생 등 여러 데이터를 적절하게 제공하는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방식이다. 또

MS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Azure)의 신세틱(synthetic) 분석 서비스와 머신러닝 서비스를 활용해 스마트팩토리 제조 환경을 고도화하고, 스마트 에너지와 전력 데이터 기반의 신사업 모델도 발굴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MOU 현황을 점검하고, 협업 방식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LS일렉은 2022년 MS와 협력해 청주사업장 생산라인의 불량률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도 MS의 글로벌 파트너사인 ‘사이트머신’과 ‘AI 기반 지능형 제조-에너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을 위한 MOU를 맺기도 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한화-사우디 국가방위부 현지방위산업 육성 맞손

WDS 2024서 방산협력 MOU

한화가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고, 현지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사우디 방산 전시회(WDS 2024)’ 기간 중 사우디 국가방위부와 방산 협력을 위한 3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8일 진행된 체결식은 김영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임원과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디 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사우디 국가방위부는 영토와 국경 보호, 치안 관리, 왕실, 이슬람 성지 보호를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국방부와 다른 별개 정부 부처다.

한화는 MOU에 따라 장갑차 등 지상무기체계부터 로켓 및 위성을 활용한 감시정찰체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방위부의 중장기 획득 계획에 참여할 계획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2022년 군사비로 750억 달러(약 100조 원)를 지출해 세계 5위를 차지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7.4%로 우크라이나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규모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KAI, 지난해 매출 3.8兆 신기록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해 매출 3조8193억 원, 영업이익 2475억 원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년 대비 매출은 37%, 영업이익은 75% 늘었다.

KAI의 지난해 매출은 창사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218억 원으로 2016년(2645억 원) 이후

최대다.

KAI에 따르면 폴란드 FA-50GF 12대의 성공적 납품과 KF-21, 상륙공격헬기, 소해헬기 등 안정적인 체계개발, 코로나로 위축됐던 기체부품사업의 회복세가 최대 매출을 견인했다.

4분기 실적은 매출 1조5100억 원, 영업

전년비 37% 늘어... 영업이익 2475억 75%↑ 폴란드 FA-50GF 납품·기체부품사업 회복

이익 1543억 원, 당기순이익 1294억 원으로 집계됐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각각 74%, 311%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분기 단위 역대 최고 성과를 올렸다.

지난해 총 수주 규모는 4조6365억 원으로 지난해 연초 목표치였던 4조4769억 원 대비 초과 달성했다. KAI는 올해 매출

3조7684억 원, 전년 실적 대비 27.6% 증가한 5조9147억 원의 수주 목표치를 발표했다.

강구영 KAI 사장은 “지난해 불안정한 글로벌 환경을 극복하고 KAI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며 “올해는 수출 기종을 다변화하고 미래 사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실행을 통해 퀀텀 점프의 기반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욱 기자 haewookk@

한국 공략하는 '이케아' 니토리... 유통망 확대 통할까

상륙 3개월 만에 2호점

일본의 이케아로 통하는 니토리가구가 한국 상륙 3개월만인 이달 중순 2호점을 내고 유통망 확장에 속도를 낸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니토리코리아는 이달 22일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2호점 문을 연다. 니토리코리아는 오는 4월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3~4개 매장을 열 계획이다.

니토리코리아는 일본 최대 가구 업체다. 1967년 일본에서 소규모로 시작된 니토리는 2000년대 들어 당시 일본 가구 업계 1위 기업 오오츠키가구를 제칠 정도로 성장했다. 글로벌 가구 공룡으로 불리는 이케아에 맞서 일본 내 1위를 지키는 가구 기업으로 잘 알려졌다. 이케아보다 더싼 가격으로 합리적 소비를 앞세워 시장을 공략한 것이 경쟁력으로 꼽힌다.

가구업계 한 관계자는 "니토리는 해외 공급망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기획·제조·물류·판매를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22일 홈플러스 영등포점 입점 소가족 중심 중소형 제품 공략 이케아 주도 국내 시장 상황서 중저가 전략 통할지 미지수

니토리 "소비자 접근성에 집중 올 10곳·10년 내 200곳 출점"

불황에서도 살아남았다"며 "한때 국내 기업들이 벤치마킹해야 하는 소매기업으로 주목받기도 했다"고 설명8했다.

지난해 초 전 세계 약 900개 매장을 운영하던 니토리는 지난해 한국 등 매장 확대를 통해 매장 수가 1000개를 넘어서고 있다. 글로벌 매출은 8조 원을 넘는다.

니토리가구는 지난해 11월 한국에 상륙했다. 서울 이마트하월곡점이 1호점이다. 약 900평 규모 매장에 접이식 매트리스를 비롯해 베개, 러그, 식탁, 소파, 소파 매트, 수납침대 등 다양한 중소형 가구들



이마트 하월곡점에 문 연 니토리 한국 1호점.

사진제공 이마트

과 인테리어 제품 등을 진열했다.

대가족보다 소가족 중심의 일본환경을 반영한 아기자기한 가구 제품과 대형 규모의 제품을 다양하게 공급한다는 전략을 짰다.

실제 3인용 소파의 폭이 215cm 높이 86cm로 크기가 작다. 대부분의 가구가 아담하고 우수한 수납 기능을 갖췄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이같은 가구

특성이 1인 가구가 비중이 커지는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니토리코리아 측은 보고 있다.

다만 이케아 인지도가 높은 국내에서 니토리가 얼마나 중저가 시장의 비중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케아는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과 북유럽 스타일의 인테리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 인테리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국내 토종 가구 기업은 물론 이케아마저도 실적 약

화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케아의 2023년 회계연도(2022년 9월~2023년 8월) 매출액은 6007억 원으로 전년(6223억 원) 대비 3.47% 감소했다. 이 기간 영업이익은 219억 원에서 26억 원으로 88% 넘게 급감했다. 당기순이익은 52억 원 손실로 적자전환했다.

또 니토리의 가격이 대체로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3인용 소파가 90만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가격 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니토리는 이케아와 달리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이케아는 경기도 고양, 광명 기흥 등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4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반면 니토리는 올해 국내에서 10개 매장, 향후 10년간 총 200개 점포를 출점할 계획이다.

앞서 오누키케이고 니토리코리아대표는 "우리 강점은 고객이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매장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2032년까지는 전 세계 3000개 매장, 글로벌 매출 30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중소 졸업유예 '3년→5년' 확대한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의결 중기부 "중견기업 안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요건 등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당초 3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 3년 동안 대·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다만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했다.

하지만 일부 중견기업들이 세제 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회귀 기업은 연간 60~90개사로 이는 중견기업 1~2년 차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2021년도 중견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중견기업의 6.2%인 341개 사가 중소기업 회귀를 검토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졸업 초기기업의 중견기업 안착을 촉진하기 위해 졸업 유예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당초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른 경우 중견 1~2년 차가 되는 기업에도 졸업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해 성장을 가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유예 기간에 세제 지원이 지속할 수 있도록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차례로 개정한다.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정책 급감 및 규제 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성장 후 경영이 안정화하기까지 지원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20일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돼 신규 유예 기업에 적용된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실적 날개단 경동나비엔, 8년 연속 배당↑

올해 1주당 550원 배당 공시

경동나비엔이 8년 연속 배당금 규모를 확대했다.

13일 보일러 업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올해 1주당 550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배당금 총액은 79억5000만 원 규모다. 경동나비엔은 2017년 1주당 배당금을 100원에서 150원으로 올린 뒤 매년 배당금을 늘려왔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배당에도 여유가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경동나비엔은 지난해 영업이익 1062억1600

만 원으로 전년 동기(597억7100만 원) 대비 77.7%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

올해는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동나비엔은 지난해 미국 시장에 '콘텐츠 하이드로 퍼네스'를 처음 출하하면서 북미 메인 난방 시장인 '퍼네스(Furnace)'에 진입했다. 경동나비엔은 북미 메인 난방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며 글로벌 냉난방 공조(HVAC) 시장 공략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배당금 규모에 대해 "주주권의 보호를 위해 배당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cell beauty



All Day Care In Lotion

엘비비 골든 까멜리아 로션

추위에도 꽃을 피우는 까멜리아의 강인한 생명력과 향산화 효능을 지닌 강황이 만나 탄생한 골든 까멜리아 로션

100시간 보습 지속 · 피부 탄력 개선 · 민감 피부 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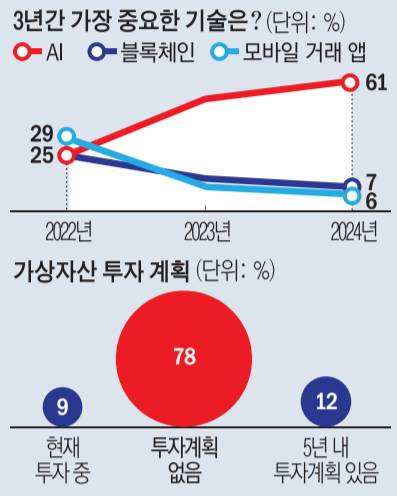
LBB 한남동 소름 |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태원로 55길 45 | 롯데 백화점 본점 1F / 롯데 면세점 본점 9F
LBB 스파 | 한남동 라 부티크 블루 / 제주 나인브릿지 CC
02-555-5152 lbbkorea.com @lbb_cellbeauty

비트코인, 5만달러 뚫었지만... 기관 수요는 아직 '잠잠'

2월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 및 비트코인 가격

날짜	순유입(억달러)	BTC가격(달러)
1일	1.977	4만2569
2일	0.3846	4만3077
5일	0.8006	4만2577
6일	0.681	4만2657
7일	0.2244	4만3090
8일	1.5697	4만4332
9일	4.0503	4만5297
13일	-	5만83

기관투자자 인식



비트코인현물상장지수펀드(ETF)가 20 거래일 만에 운용자산 규모(AUM) 100억 달러를 달성, 비트코인 가격 역시 이날 한때 5만 달러를 돌파했다. 현물 ETF로 자금 유입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초 현물 ETF의 효과로 기대됐던 기관 자금 유입 증가를 두고는 다소 상반된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 후 한달, 20 거래일 만에 운용자산 규모(AUM)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이 증가하며 비트코인 가격 역시 이날 한때 26개월 만에 5만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날 오후 2시 가상자산 시장 사이트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4만 9900 달러 선을 오르내리는 중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높았던 때는 2021년 4월 한때와 10월, 11월뿐이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 유출이 감소하고,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BIT), 피델리티의 FBTC 등을 포함한 나머지 9개

현물 ETF, 운용 규모 100억달러 비트코인 26개월 만에 5만달러 넘어

기관투자자 78% "투자 계획 없어" 가상자산 관련 인식 2년전보다 악화

일각 "아직 초기...선부른 판단 안돼" 유통채널 온보딩 이후 본격적 유입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유입이 늘어난 것이 이번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블랙록 IBIT의 브로커 딜러 지정 판매사(AP)이기도 한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유동성을 판단하는 2가지 지표에서 IBIT와 FBTC가 GBTC를 넘어섰다"면서 "GBTC가 수수료를 내리지 않는다면 IBIT와 FBTC로 자금 유입이 계속 될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실제로 8일(현지시각)과 9일(현지시각) 나머지 9

개 ETF 유입량에서 GBTC 유출량을 뺀 순유입량은 각각 약 9000개, 1만 개를 넘어서기도 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런 현물 ETF의 성과를 높게 평가해 온바 있다. 에릭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는 10일(현지시각) 블랙록의 IBIT와 피델리티의 FBTC가 30년 동안 출시된 ETF 중 첫 한달(20거래일) 간 가장 높은 성과를 나타낸 ETF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첫해 200억 달러 순 유입 전망 등이 나온 바 있다. 이같은 예측에는 기관 투자 수요의 증가에 대한 예측이 깔려 있다. 현물 ETF가 법인과 기관에 현물 직접 거래 대비 편리한 거래 환경과 수수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기존 규제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해오던 전통 금융기관들이 상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을 둘러싼 증권성이나 위법성 리스크 역시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2년 전보다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JP모건이 기관 투자자 40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 중 78%는 '가상자산 투자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정석문 코빗리서치 센터장은 여전히 기관 자금 유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센터장은 "2022년 초는 2021년 불장 직후 투심이 매우 고조되어 있었던 때였고, NFT나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컸지만, 그 자체가 투자 결정에 주는 영향은 별로 없었다고 본다"면서 "기관 투자자들도 아직 모르는 것이 많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 목적인 투자자들에게는 아직도 상승 여력이 많다"고 말했다.

단순 설문 조사만으로 기관 수요를 예측하기엔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라는 설명이다. 앞서 정 센터장은 "아직 너무 초반이고 본격적인 유입은 (ETF 상품) 투자자 문명 등 펀드 유통 채널에 온보딩된 이후부터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본격적인 자금 유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시은 기자 zion0304@

'오락가락' R&D 정책에... 결국 혼돈에 빠진 연구현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으로 연구개발(R&D) 분야 혁신을 강조했다지만, 정작 연구 현장에서는 R&D 예산이 뒤늦게 확정된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1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아이리스)이 지난 2일 오전부터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은 한국연구재단의 개인기초연구 신규과제 접수 마감일이었다. 마감 시간인 오후 6시를 앞두고 신규과제를 접수하려는 연구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된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결국 개인기초연구 신규과제 접수마감기한을 2일에서 5일로 연장하고, 연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문자로 공지했다.

범부처 지원관리시스템 '아이리스' 연구과제 접수 물리며 서버 다운 예산안 확정 늦어지며 공고 지연 연구비 쪼그라들어 '눈물의 재도전'

아이리스는 정부 R&D 관리 시스템이 부처별로 나뉘어 있고, 규정이나 시스템이 상이해 번거롭다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2018년 시스템 구축 추진, 2022년 공식 가동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한국연구재단을 비롯해 29개 주요 전문기관들이 아이리스를 본격적으로 적용하면서 올해 대부분 신규과제는 아이리스를 통해서만 접수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 R&D 예산안이 삭감 이슈로 인해 최종 확정지 늦어지면서 과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추진 일정

2018년	연구지원시스템 통합추진단 설치
2019년	범부처 R&D 관리 규정 및 지침 표준안 수립
2020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
2022년	IRIS 공식 개동
2023년	IRIS 적용 전문기관 29개로 확대 운영



공고 시점이 예년보다 늦어지고, 여러 연구과제 공고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연구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 한 과학기술원 교수는 "지난해에는 개인기초 연구 접수가 11월 공고되고, 이후 집단 연구지원이 11~12월 순차적으로 공고돼 3, 4월에는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거

의 2월 초 전후로 한꺼번에 공고가 올라왔다"면서 "교수들 사이에서는 짧은 기간에 많은 과제가 떠서 (과제선정) 평가위원들을 제대로 구성할 수 있는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과제 선정 시 상호평가 금지 등 제척 기준이 있는데, 한꺼번에 과제 공고가 올라오고 이로 인한 접수자가 몰리다 보니 평가위원회 들어갈 만한 각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상반기 과제 접수가 물리는 것을 대비해 작년에 하드웨어 장비를 두 배로 증설하고 성능을 향상해줬지만, 공고롭게도 중견연구사업과 우수신진연구사업(공고)가 올해 초 많이 몰렸다"면서 "기초 연구 사업 관련한 예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다 보니 공고가 다소 늦어졌다"

고 말했다. 평가위원회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아이리스를 통해 3만8000만여 명의 평가위원 풀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각 전문기관에서 평가 시기가 겹치게 되면 우수 평가위원을 쓸 수 없게 돼 시기를 다소 분산해서 (평가하는)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에 선정된 과제를 포기하고 이번에 새로과제를 신청하는 연구자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연구현장의 혼란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 지방 국립대 교수는 "작년에 과제가 선정되긴 했지만, 연구비가 갑작스럽게 30%정도 줄게 돼 해당 과제를 포기하고, 새로운 연구주제로 방향을 틀어서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카카오 CA협의체, 투자절차 강화... 전략위원장에 정신아 내정

최종 의사결정 전 CA협의체 검토 경영쇄신위 등 5개 위원회 신설

카카오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CA(Corporate Alignment)협의체가 산하 5개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각 위원회는 카카오 계열사들이 내린 의사결정의 리스크를 검토한다. 전략위원장은 정신아(사진) 대표 내정자가 맡는다.

CA협의체는 김범수, 정신아 공동의장을 비롯해 13개 협약 계열사 대표이사(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협의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CA협의체는 카카오 그룹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독립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 CA협의체는 신규 투자 집행 및 유지, 지분 매각, 거버넌스 변경 등에 대한 프로세스를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협약 계열사는 최종 의사결정 전에



CA협의체 각 위원회의 리스크 검토를 받고, 준법과신뢰위원회 보고를 거친다는 원칙을 수립했다. 사회의 눈높이와 신뢰에 부합하는 성장

하기 위해 기존 보다 안팎의 검증과 통제 체제를 한층 강화했다.

CA협의체 아래 △경영쇄신위원회 △전략위원회 △브랜드커뮤니케이션위원회 △ESG위원회 △책임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특수목적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유연성 있게 조직을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경영쇄신위원회는 기존과 동일하게 김범수 의장이 위원장을 맡아 카카오 그룹 전체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게 된다. 전략위원회는 정신아 대표 내정자가 맡으며 그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현안과

KPI, 투자 등을 검토한다.

카카오 그룹의 브랜드 및 메시지 전략 강화를 위해 브랜드커뮤니케이션위원회도 신설한다. 위원장에는 이나리 전 쉐리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을 영입했다. 이나리 위원장은 삼성그룹 제일기획 상무,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디캠프 초대 센터장,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CA협의체는 이나리 위원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쌓은 전문성 및 노하우를 카카오 그룹 전반에 이식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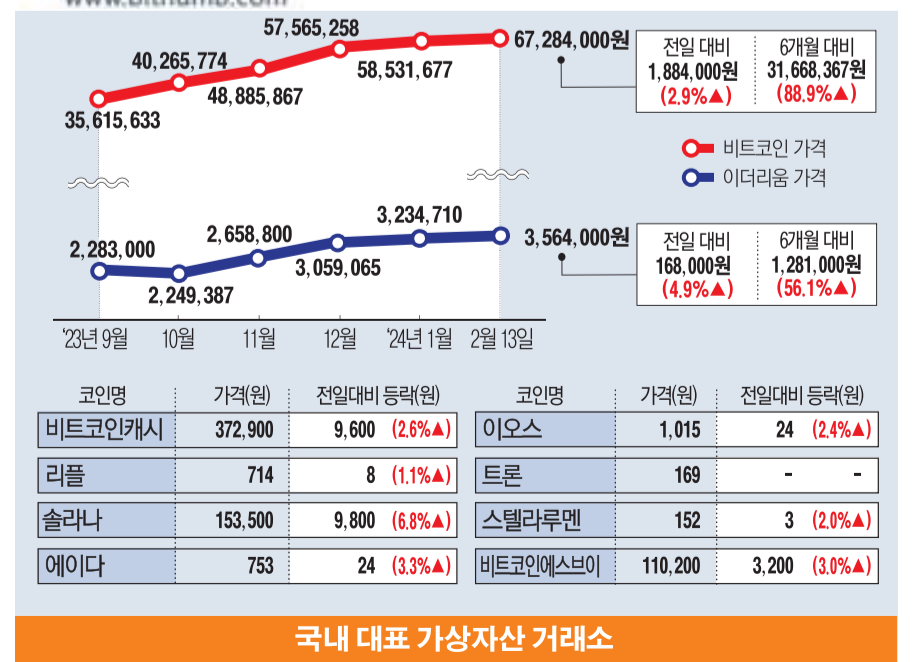
ESG위원회는 권대열 위원장이 맡는다. ESG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사회와 소통함과 동시에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와 협업하게 된다. 정기 감사와 컴플라이언스, 윤리, 법무 이슈를 다루는 책임경영위원회는 권대열 위원장이 당분간 겸임한다.

카카오는 "각 위원회는 영역별로 그룹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아젠다를 발굴하고, 방향성과 정책 관련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며 "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을 참고해

각 협약 계열사에 참고 및 권고 의견을 결정하고, 담당 분야에 대한 그룹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빗썸 지수 (2024년 2월 13일 17:00, KST)



한미약품 경영권 둘러싼 母子갈등... 내달 주총서 '대격돌'

한미약품창업주(故) 임성기 회장의 장남인 임종윤(왼쪽 사진) 한미약품 사장(코리그룹 회장)이 한미약품그룹의 경영에 전격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경영권 분쟁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펼쳐질 표대결을 통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통합으로 촉박한 가족간 갈등이 일단락될지 주목된다.

임종윤 사장 측은 지주사 한미사이언스는 차남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한미정밀 화학대표), 자회사 한미약품은 임종윤 사장이 각자대표를 맡아 직접 그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임종윤·종훈 형제는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이달 8일 주주제안권을 행사했다. 3월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두 형제와 자신들이 지정한 4명의 이사 후

지주사·자회사 형제경영 천명 "2018년 주가 이상 회복시킬 것" 한미그룹, 형제 방침에 "유감" '키맨' 신동국 회장 선택 주목

보자가 한미사이언스의 새로운 이사로 선임되도록 하는 안건을 상정해 달란 내용이 다. 임종윤·종훈 형제는 "이번에 주주제안의 목적은 이사회 진입이 아니라 선대회장의 뜻에 따라 지주사와 자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 한미약품그룹을 경영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송영숙(오른쪽 사진) 한미약품그룹 회장 겸 감사 출신 신유철 사외이사, 대법관 출신 김용



덕 사외이사, 자산운용사 대표 출신 광대선 사외이사의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종윤 사장 측은 현 이사진이 제약산업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 경영진의 불투명한 밀실경영으로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을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종윤 사장은 "피인수합병으로 지주사 지위 상실 시 한미사이언스는 단순한 미약품 주식 40%와 현 헬스케어 사업 등

의 기업가치만 인정받아 대략 현 주가의 67%인 2만5000원 수준에 그쳐 선의의 주주들이 입는 직접 손실액 피해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며 "모든가용 전략을 동원해 주가를 2018년 이상으로 회복시켜 모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미그룹 측은 임종윤·종훈 형제의 주주제안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그룹 관계자는 "예상된 수순으로, 이같은 행보는 사익을 위해 한미를 이용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률과 절차에 따라 OCI그룹과의 통합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윤·종훈 형제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28.4%다. 모친인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외 특수관계인 지분은 31.9%로 3.5%

차이가 난다. 임종윤 사장 측은 가현문화재단(4.9%)과 임성기재단(3%)의 경우 주총에서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종윤 사장의 측근은 "공익재단으로서 가족간 분쟁에 있어선 중립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주총 표 대결이 공식화되면서 승패의 열쇠는 지분 11.52%를 손에 쥔 신동국한양정밀 회장에게 쥐어졌지만,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임종윤·종훈 형제와 송 회장 양측 모두 신 회장이 자신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대결과 별도로 법적공방도 진행 중이다. 임종윤·종훈 형제가 법원에 제기한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금지처분신청은 이달 21일 첫 심문이 열린다.

유혜은 기자 euna@

보툴리눔 독신 '치료 적응증' 새 블루오션... 국내 기업들 '침범'

국내 보툴리눔 독신 기업이 치료용 적응증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미용 중심의 국내 독신 시장은 포화상태로, 치료용 적응증은 블루오션 진입을 위한 열쇠로 떠올랐다. 치료용 적응증 획득은 해외 진출에도 긍정적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툴리눔 독신 기업 대웅제약과 휴젤은 대표 제품에 치료용 적응증 추가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 보툴리눔 독신은 주로 주름 개선 등 미용 목적 시술에 활용된다.

대웅제약은 미국 파르너사 이온바이오파마와 치료용 적응증 확보에 나섰다. 보툴리눔 독신 '나보타'를 만성·삼화성 편두통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2상을 진행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 2상 환자 등록을 완료했으며, 올해 3분기에 해당 임상의 데이터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또 이온바이오파마는

대웅제약 편두통 사용 2상 진행 휴젤 과민성 방광 치료 1상 마쳐

국내는 미용, 외국은 치료 활발 해외 성과 위해 적응증 강화 필수

경부근 긴장이상 치료 2상을 진행 중이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전임상 후 1상을 준비하고 있다. 나보타의 위마비 치료용 임상 1상을 완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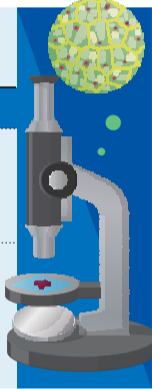
실제로 보툴리눔 독신은 한 달 15일 이상,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편두통 환자에 투여 시 증상완화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대한두통학회는 '편두통 예방 치료 약제 진료지침'에서 보툴리눔 독신을 성인 만성 편두통환자의 예방약제 사용을 권고하기도 했다.

휴젤은 '보툴렉스'를 과민성 방광 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임상 1상을 마쳤다.

국내 보툴리눔 독신 치료용 적응증 현황

기업	대웅제약 (미국 이온바이오파마)	휴젤
제품명	나보타	보툴렉스
확보 안료	-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 양성본태성 눈꺼풀 경련	-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 양성본태성 눈꺼풀 경련 - 소아 뇌성마비 환자 경직
임상 중	- 만성·삼화성 편두통 - 경부근 긴장이상 - 위 마비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과민성 방광 - 경부근 긴장이상

※출처: 각사



현재 방광기능장애 환자 중 경구투여 약물치료가 어렵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환자에 대해 보툴리눔 독신 투여를 통한 치료가 고려되고 있다. 2015년부터 한 국엘러간의 '보톡스' 활용 치료에 건강보험급여 적용도 시작했다. 또한, 휴젤은 보툴렉스의 경부근 긴장이상 치료용 1상도 진행했다. 휴젤 관계자는 "과민성 방광 치료와 경부근 긴장이상 1상을 모

두마무리했고, 2상 진입 계획은 아직 구 체화하지 않은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은 이미 치료용 적응증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나보타는 현재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양성본태성 눈꺼풀 경련 등 2개의 치료용 적응증이 있다. 보툴렉스는 이들 2개 적응증에 더해 소아 뇌성마비 환자 경직까지 총 3개 치료용 적응증을 확보했다.

다만 국내의 경우 미용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치료 목적의 보툴리눔 독신 사용이 활성화하지 않았다. 건강보험급여 적용 사례도 드물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는 2023년 기준 국내 보툴리눔 독신 시장규모가 약 2090억 원이고, 이 중 미용 시장이 약 90%로 추정했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선 치료 목적 사용이 활발해, 미용 시장을 압도한다. 시장조사기관 포춘비즈니스인사이드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보툴리눔 독신 시장 규모는 약 8조3000억 원으로, 치료용 시장은 약 4조4000억 원이다. 치료용 적응증을 확대하면 해외에서 미용은 물론 치료용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어 경쟁력이 강화되는 셈이다. 한 보툴리눔 독신 기업 관계자는 "해외 시장은 치료와 미용 수요 비율이 6대 4에 가깝다. 해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치료용 적응증 강화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성주 기자 hsj@

삼바, CDP 평가서 K-바이오 최초 '리더십A-' 등급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기후변화대응 부문 노력 결실 존립 "지속가능경영 이어갈 것"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 CDP로부터 기후변화대응 부문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매니지먼트(B)' 등급에서 한 단계 상향된 것으로, 국내 바이오·제약업계에선 최초다.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는 2000년 영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국제단체로,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이슈 대응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2023년에는 2만3000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 CDP 평가는 글로벌 제약사와 투자자 등이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 파악을 위한 지표로 활용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1년 국내 업계 최초로 CDP에 참여했다. 평가첫해에 상위 두 번째 등급인 매니지먼트 등급을 받았다. 2022년 같은 등급을 유지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사진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

2023년 평가에선 리더십 A- 등급으로 한 단계 올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50 넷제로(Net Zero)를 목표로 △사업장 에너지 절감·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RE100, SMI(Sustainable Markets Initiative),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공급망 탄소중립 지원·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한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외에도 태양광 발전 설비,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 공급망 ESG 평가를 강화하고 협력사 지원활동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등 혁신을 거듭해 기후변화 리더십을 강화할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고 인류의 더 나은 미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기자 imfactor@

JW중외제약 "헴리브라 약효·안전성 입증"

만 1세 미만 A형 혈우병 환자 대상



JW중외제약은 만 1세 미만 A형 혈우병 환자 대상 '헴리브라' (사진)(성분명 에미시주맵)의 약효와 안전성을 입증한 연구 중간결과가 최근 국제학술지 '블러드(Blood)'에 게재됐다고 13일 밝혔다.

헴리브라는 혈우병 환자의 몸속에 부족한 혈액응고제 8인자를 모방하는 혁신 신약이다. A형 혈우병 치료제 중 유일하게 기존 치료제(8인자 제제)에 내성을 가진 항체 환자와 비항체 환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최대 4주 1회 피하주사로 예방 효과가 지속된다.

지난해 5월 건강보험급여 대상이 만 1세 이상 비항체 중증 A형 혈우병 환자로 확대됐지만, 8인자 제제 사용 이력이 없거나 만 1세 미만 환자는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스티븐파이프미국미시간대학교 소아병리학 교수 연구팀은 헴리브라를 투여한 1세 미만 비항체 중증 A형 혈우병 환자 55명을 대상으로 7년간 장기 추적 관찰연

구(HAVEN 7)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중간결과는 2021년 2월부터 100.3주간 환자 대상의 연구다.

연구결과 헴리브라 투약 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한 출혈은 총 25명에게 42회 발생했다. 모두 외상성 출혈이었고 자연출혈은 발생하지 않았다. 안전성 측면에서 헴리브라 치료 중단이나 치료제를 변경할 수준의 이상반응이 발견되지 않았다. 파이프 교수는 "헴리브라 투약 후 자연출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예방요법의 주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1세 미만 A형 혈우병 환자 대상 헴리브라의 약효와 안전성을 데이터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연구를 통해 1세 미만 A형 혈우병 환자들도 치료 혜택을 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집값 내림세에도... 평택·덕양·김포, 이유 있는 '역주행'

(고양시)

평택·덕양, GTX 신설·연장
김포·인천 서구도 5호선 연장
청주는 대기업 입주 고용 기대
전국 아파트값 11주째 하락 속
올들어 속속 상승세 전환 대조
전문가 "개발 호재 국지적 영향"

전국 아파트값 내림세가 11주 연속 이어지고 있지만, 대규모 교통 개발이나 정책 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된 지역의 집값은 역주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공통점은 정부의 대규모 교통 개발이나 대기업의 신규 일자리 공급이 예정된 곳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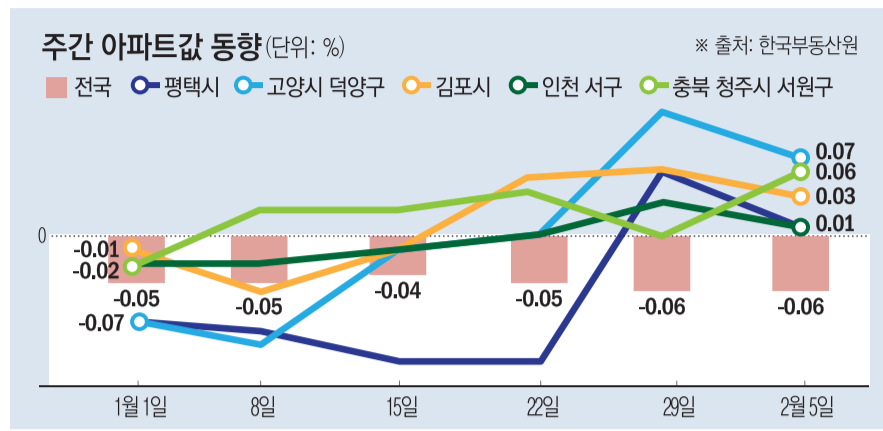
13일 한국부동산원 통계 분석 결과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 기준으로 수도권에선 경기 평택시와 김포시, 고양시 덕양구, 인천 서구 등이 2~3주 연속 집값 오름세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선 충

북 청주시 상당구와 서원구, 충남 논산시 등이 강세를 보였다.

먼저 평택과 고양시 덕양구 등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신설과 연장 효과로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평택은 지난달 29일 0.03%, 지난 5일 0.01% 상승을, 김포는 지난달 22일 0.04% 상승 후 같은 달 29일 0.05%, 지난 5일 0.03% 오름세로 집계됐다.

평택은 GTX A노선과 C노선이 동시에 평택지제역까지 연장돼 이번 GTX 개발 호재의 가장 큰 수혜지역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기존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공장 건설도 순항 중인 만큼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일자리와 교통 호재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또 고양시 덕양구는 대곡역이 GTX A노선 개통으로 총 4개 노선이 지나가는 교통 요지로 탈바꿈할 것이라 기대감이 반영됐다. 현재 대곡역은 서울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 3개 노선이 지난



해당 지역 실거래가도 고점을 빠르게 회복 중이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평택지제역 인근 '힐스테이트평택2차' 전용면적 64㎡형은 지난달 24일 3억6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11월 같은 평형이 3억3200만 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2800만 원 오른 수준이다. 고양시 덕양구 'DMC중흥S클래스 더센트럴' 전용 59㎡형 역시 지난해 말 6억~6억2000만 원 선에 거래됐지만, 지난 1일에는 6억6000만 원에 손바뀜하면서 실거래가 격이 경중 뒤편었다.

수도권에선 또 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시 등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중재안 발표 후 노선 연장 기대감에 강세를 보인다. 김포는 지난달 22일 0.04% 오른 뒤 3주 연속 상승 중이며 인천 서구도 지난달 29일 0.02% 오른 뒤 2주 연속 올랐다. 검단신도시가 속한 인천 서구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역 2곳이 신설될 예정이다. 또 GTX D노선이 검단을 지날 것으로 예정돼 집값 상승에 힘을 보탤다. 김포역 5호선 중재안이 발표되면서 노선 연장 기대감이 재차 커졌고, 총선을 앞두고

서울 편입론이 재점화하면서 3주 연속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에선 일자리 확대 기대감이 큰 곳 이 강세를 보였다. 청주시는 SK하이닉스와 LG생활건강이 들어섰고,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등으로 꾸준히 일자리가 늘고 있다. 이밖에 논산시는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순항하면서 지난해 9월 4일 이후 최근까지 우상향하고 있다. 국방산단은 지난달 말 국토부 최종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는 전체 시장이 좋지 않은 만큼 이들 지역의 집값 강세가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내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조정의 터널을 지나가는 과정이고, 아직 반등을 말하기 이른 시점"이라며 "지방에서도 많이 안 올랐던 지역이나 일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국지적으로 더 오를 순 있겠지만, 과거처럼 큰 폭으로 오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주택 공급확대·건설경기 활성화... LH, 올해 '공적기능 강화' 방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활성화 등 공적 기능 강화에 집중한다. 주택 공급불안 해소를 위해 10만5000가구의 주택 인허가와 5만 가구 규모 착공을 추진한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8조4000억 원 중 65%를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한다.

LH는 공적 기능 강화를 담은 올해 '5대 부문 11대 중점과제'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고금리·원자재값 상승으로 민간 부문 공급 여력이 축소된 상황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총 10만5000가구의 주택 인허가와 5만 가구 이상의 착공을 추진한다.

인허가는 전년 실적(8만4000가구) 대비 25% 이상 증가한 10만5000가구가, 향후 주택분양과 직결되는 착공물

연내 주택 인허가 10.5만 가구·착공 5만 가구
공공임대 6.5만 가구 공급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비 18.4조 중 65% 상반기 조기 투자 집행
부실공사 재발 방지... 혁신안 적기 이행하기로

량 역시 전년 대비 4배 이상 확대된 5만 가구 이상을 추진한다. 6만9000가구 이상 뉴·홈 인허가를 통해 국민 주거사다리 마련을 지원하며, 3기 신도시 5곳은 조성일정을 앞당겨 모든 사업지구에서 연내 착공(1만 가구 이상)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박차를 가한다. 도심에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매입·전세임대 또한 전년 계획 대비 1만 가구 이상 확대된 6만5000가구를 공급해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여기에

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가 포함된다.

매입임대의 경우 청년·신혼·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도심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신축매입을 2만3000가구까지 확대하고 원활한 물량 확보를 위해 매입가격 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노후 도심 재정비 정책 추진도 강화한다. 공공주도의 체계적인 도심정비와 미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가시화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

설계 책임 강화를 위해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방식'을 도입하고, 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2단계 검증을 시행해 부실시공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3기 신도시는 입주 전 광역교통 인프라 설치를 완료해 신도시 입주 초기 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LH는 올해 광역교통 인프라에 1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3기 신도시는 GTX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발 계획도 보다 정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올해 공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LH는 빠르고 과감한 공공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으로 국민의 집 걱정은 덜고 경제 활력은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일단 버티자"... 건설업계, 외형 확장보다 내실 다지기

삼성 6.4% ↓ · 현대 10.8% ↓ ...
대형사 대부분 수주 목표 낮춰
주택경기 악화·공사비 급증 영향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올해 수주 목표를 지난해보다 낮춰 잡았다. 주택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위험 부담을 안고 성장성을 키우는 것보다 부실화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버티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올해 수주 목표를 지난해 실적 19조2280억 원보다 6.4% 적은 18조 원으로 설정했다. 다른 건설사들도 수주 눈높이를 낮췄다. 현대건설은 올해 수주 목표를 지난해 32조4906억 원보다 10.8% 줄여 28조9900억 원으로 잡았다. 대우건설은 작년 실적보다 12.9% 축소된 11조5000억 원,

DL이앤씨는 22.1% 감소한 11조6000억 원을 수주 목표로 제시했다.

GS건설은 지난해 10조1840억 원보다 많은 13조5000억 원을 목표로 내놨다. 하지만 작년 실적이 16조 원대였던 2022년보다 37%가량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황됐다고 보기 어렵다.

주요 건설사들이 수주 목표를 낮춘 것은 주택경기 악화와 공사비 급증 영향이 크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 공격적인 수주에 나서기 힘든 상태"라며 "매출 비중이 큰 주택 사업에서 선별 수주 전략을 추구하다 보니 목표치가 높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사비 부담이 워낙 큰 상황이라 사업을 많이 확보하는 게 오히려 수익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성장성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청약 시장 분위기가 악화하고 있는 것도 건설사들이 몸을 사리는 이유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얼어붙으면서 분양시장도 상황이 좋지 않아 미분양과 그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그런 만큼 새로운 사업을 떠나는 것 이상으로 기존 사업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신사업과 해외시장을 통해 국내 주택 부문의 부진을 상쇄할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각자 사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국내 주택 비중이 70% 안팎이란 점에서 신사업과 해외시장의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올해는 위험을 감수하고 사업을 확대하기보다 손실과 향후 부실화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버티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

거래량 2022년 31% 감소 이어 지난해 39% 뚝 희생 기미 안보이는 오피스텔 매매시장

오피스텔 시장이 전세사기와 고금리 여파 등으로 2년째 극심한 침체를 나타냈다.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한동안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을 집계한 결과 2만6696건으로 전년보다 38.7%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2년 31%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30% 넘게 축소된 것이다. 오피스텔 거래량은 2021년 6만3010건에서 2022년 4만3558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오피스텔 시장은 아파트와 탈동조화 된 모습을 나타냈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는 1:3대책과 특례보증자리론 출시 영향 등으로 2~10월 매월 3만여 건 이상 거래됐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매달 2000여 건에 그치며 L자형 그래프를 그

렸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은 2022년 4549건에서 지난해 2277건으로 50% 감소했다. 경기와 서울도 각각 44%, 42% 줄었다. 지난해 거래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별 거래 비중은 60㎡ 이하가 84.81%로 압도적이었다. 가격대별로는 6억 원 미만이 97.2%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억~2억 원 미만이 38.04%, 2억~6억 원 미만이 32.09%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기에는 아파트를 대체할 상품으로 꼽혔고 아파트와 같은 거래 패턴을 보였는데 전세사기 이슈로 상황이 달라졌다"며 "역전세, 고금리, 집값 하락 등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투자 수요 회복이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

<5대 시중은행>

홍콩ELS 손실액 한달새 5000억 ‘훌쩍’... 투자자 책임론도

피해 규모 ‘눈덩이’로 불어나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판매한 홍콩항생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손실 규모가 올해 들어 한달 새 5000억 원을 넘었다. 피해 규모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16일부터 판매사에 대한 2차 추가 현장검사에 착수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투자자 책임론도 술술 나오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이 판매한 H지수 ELS 상품 중 올해 들어 7일까지 총 9733억 원가량의 만기가 도래했다. 이중 고객이 돌려받은 돈(상환액)은 4512억 원에 불과해 평균 손실률이 53.6%(손실액 5221억 원)에 달했다.

이처럼 문제가 되는 상품은 주로 H지수가 고점이었던 2021년 초 이후 발행된 ELS다. H지수는 2021년 2월 17일 1만 2229를 기록하며 최고점을 기록한 뒤 점

7일 만기 9733억... 4512억 상환을 15.4조 만기로 손실 7조 될 듯

‘적합성원칙 위반’이 배상쟁점 기준안 참고 ‘자율배상안’ 낼 듯

차 하락세를 보였다. H지수가 5000 아래로 떨어진 지난달 하순 만기를 맞은 일부 상품의 손실률은 58.2%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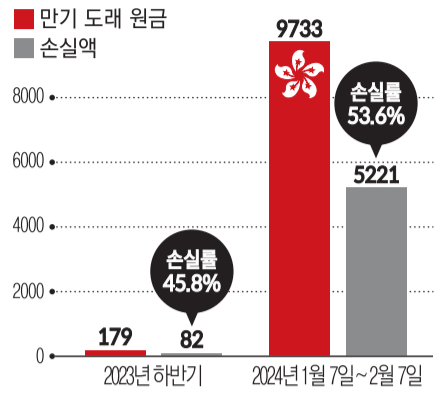
올해 15조 4000억 원의 H지수 ELS 만기가 도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H지수가 현재 흐름을 유지할 경우 전체 손실액은 7조 원 안팎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부터 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증권사 6곳(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투자)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재개한다.

이복현 금융원장은 “아직 (H지수 ELS

5대은행 홍콩H지수 ELS 손실 규모

(단위: 억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관련) 검사가 완결되지 않았지만, 불안전 판매 혹은 부적절판매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2차 현장점검을 통해 손실을 누가 책임지느냐를 결정하고 손실 분배 방안을 이달 중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은행들이 고령자, 은퇴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보호기준 없이 노후자금 등을 투자하도록 권유했다고 주장한다. 은행들이 상품에 대한 설명도 없이 무작정 고령자나 은퇴자를 대상으로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가입을 종용했다는 주장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H지수 ELS 판매액 중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에 판매된 금액은 8만 6000계좌, 5조 4000억 원(30.5%) 규모에 달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오히려 고령 투자자들이 ELS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등보다 높다고 반박했다. 특히 은행 창구에 찾아와 먼저 ELS 상품에 가입하려 왔다면 자발적으로 신청을 원한 고령 투자자도 많았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피해자들의 목소리만 듣고 은행권만 압박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손실을 본 이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무작정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은행권에 일방적인 자율 배상안 마련만 요구한다면 법적인 문제도 있고 앞으로 투자 목적의 금융상품 판매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자율 배상안 검토 과정에서 H지수 ELS 판매 시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를 얼마나 폭넓게 인정할지에 따라 배상 범위나 수준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자 특성(투자 목적·재산 상태·투자 경험 등)에 얼마나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서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있다. 금융당국이 내놓을 기준안을 참고해서 자율 배상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적합성 원칙 위반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면 주주들이 반발하거나 배임을 주장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전세금 보장보험 유의사항은

“계약만료 두달前 通보해야 전세보험 유효”

집값 하락엔 가입 거절될 수 있어

A 씨는 전세 2년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이사를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받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 씨는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전세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의사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B 씨는 전세 계약 도중 직장의 인사 이동으로 인해 가족 중에 본인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B 씨는 보험사에 보험계약자를 배우자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보험사는 계약자 변경은 안 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통해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갱신 후에도 보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실제로 임대차기간 중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전셋집의 매매시세가 하락한 경우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전세금율이 높으면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청약은 가능하나, 임차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수준(예 110%)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증보험은 계약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계약자의 사정으로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재영 기자 lly0403@

부실·허위평가서 남발... 실적 부풀려 한해 수수료 수백억 쟁겨 '무늬만 기술금융' 10년만에 손본다

기술신용평가사(TCB)들이 창업·중소기업의 기술력 평가를 영터리로는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술금융' 제도가 10년 만에 수순대에 오른다.

2014년 시작된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재무 상태나 신용등급 등이 취약한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다.

은행은 대출을 신청한 창업·중소기업의 기술력 평가를 기술신용평가사(TCB)에 의뢰하고, 이 평가를 기준으로 대출 여부와 한도 등을 결정한다.

문제는 기술신용평가사들이 약 10년간 평가서를 허위·부실 발급하면서 기술금융 실적을 부풀리고 연간 수백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는 점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기술금융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금융위 정기감사 발표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급된 기술신용평가사 평가서 3856건을 표본 점검한 결과 1890건(49%)에서 부실 발급된 것을

금융위, 내달 제도개선 방안 발표 신뢰 저해 평가기관 영업정지 도입 한도·금리혜택 명확한 경우만 가점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격증 보유자가 없는 경영컨설팅업체, 대상이 아닌 자격증(자동차정비산업기사)을 보유한 자동차수리업체, 도용된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주소도 기술금융 인정 대상에 포함됐다. 병·의원 등 기술형창업과 무관한 업종도 지원이 이뤄졌다. 심지어 편의점, 음식점, 학원, 예식장 등 일반 자영업도 다수 포함돼 2~3%대 정책자금이 기술금융과 무관한 대상에 지원되고 있었다.

또한, 기술신용평가사의 평가 결과가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반영된 대출은 31.2%에 불과했다. 나머지 68.8%는 평가서만 있을 뿐, 대출 내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은 사실상 '무늬만 기술금융'인 일반대출이었

다. 다만 현행 법령에는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업무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할 근거가 없다.

금융위는 기술평가 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평가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도나 금리 면에서 일반대출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기술금융도 실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특히 기술력에 따라 대출금리나 한도를 우대할 것이 명확한 대출에 대해서만 가점을 주고, 부실한 기술금융에는 감전을 주는 등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출연금에도 차등을 둘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미흡한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대해 평가 업무 제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기술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삼성생명,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상품 수익률 1위

삼성생명은 지난해 말 기준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원리금보장상품'의 1년 누적 수익률이 동종 부문 전체 디폴트옵션 상품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4분기 수익률 현황 공시에 따르면, '삼성생명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원리금보장상품'의 연간 수익률은 전 금융권 초저위험 등급 상품의 평균인 4.56%를 웃도는 5.25%로 선두를 기록했다.

디폴트옵션은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다. 제도의 인착에 따라 지정 가입자 수는 지난해 2분기 기준 200만 명에서 479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해 총

적립금액도 12조 552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초저위험등급은 전체 디폴트 옵션 가입자의 88%에 해당하는 422만 명이 선택하며 운용 규모가 11조 2879억 원에 달해 가입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상품군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저위험과 중위험 등급에서도 '삼성생명 디폴트옵션 저위험 BF2'와 '삼성생명 디폴트옵션 중위험 BF2'가 6개월 기준 각각 3.64%와 5.23%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상위권에 올랐다.

삼성생명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장기간 축적된 자산운용 역량과 함께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 퇴직연금 전담조직을 통



한 고객 밀착 관리 등이 꼽힌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고객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서 퇴직연금 상품의 수익률을 높이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운용 가능한 상품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입자의 투자성향과 운용 목적에 맞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원 기자 jsw@

하나銀 “일임형 ISA에 AI 도입 가입하면 2만 하나머니 제공”

하나은행은 다음 달 29일까지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 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일임형 ISA’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했다. 이를 기념해 마련된 이번 이벤트는 ‘일임형 ISA’ 상품에 10만 원 이상 신규 가입하면 1년 이상 자동이체를 등록하거나, 이벤트 종료 시점 잔액이 100만 원 이상인 고객이 대상이다. 타 금융사에서 가입한 ISA를 계약이전한 경우도 포함되며,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2만 하나머니가 제공된다.

이재영 기자 lly0403@

보험가입 심사 대폭 줄인다 한화생명, 사전심사 시스템 도입



한화생명이 사전 언더라이팅(보험 가입 사전 심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고객은 기존에 청약서 서명 후 일주일까지 소요되던 심사 기간이 대폭 줄어, 청약 전에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알 수 있게 됐다. 사전 언더라이팅은 보험 계약 청약서 발행 전에 고객이 작성한 알릴 의무 사항을 통해 보험사가 가입 신청자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정상원 기자 jsw@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남궁돈 만두명장

since.1988



“진짜 하나뿐인 내 편 맞네!”

소상공인과 함께 울고 웃으며
늘 곁에 있는 **하나금융그룹**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목2동 '남궁돈 만두명장' 남궁돈 사장님

소상공인의 하나뿐인 내 편

소상공인분들께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키오스크, AI CCTV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사업명: 고효율, 디지털 기기 지원 사업

신청기간: 2024년 1월 22일(월) ~ 2월 23일(금)

신청방법: 하나 파워온 공식 홈페이지 <https://www.hanapoweron.com>

신청하러 가기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편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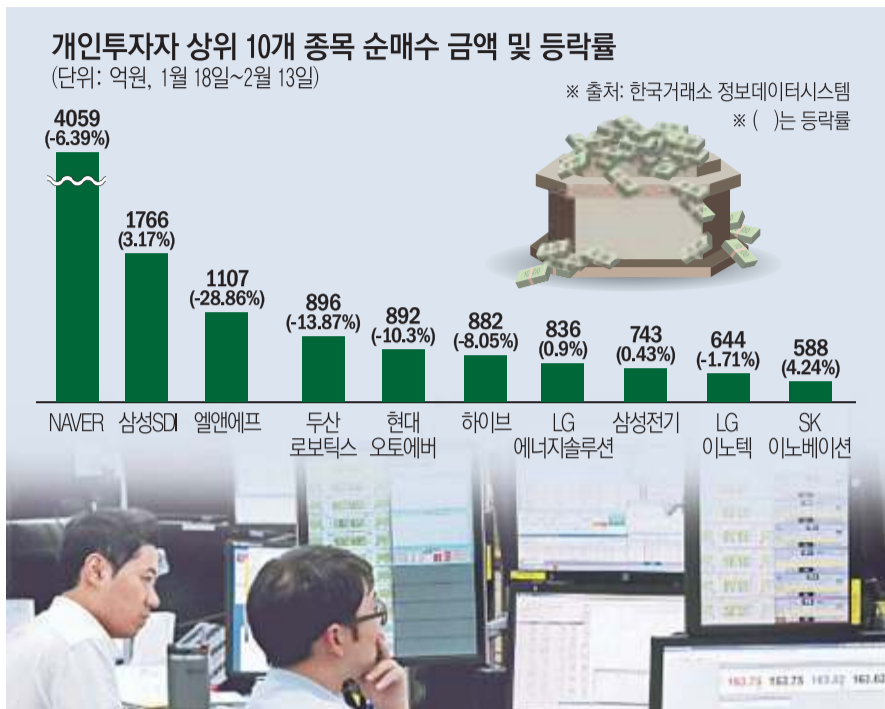
“저PBR주 잘 나가는데”... 청개구리 투자한 개미 통곡

‘순매수 최다’ 네이버 6.39% 폭
3위 엘앤에프는 28.86% 급락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에
外人·기관 저PBR주 집중매수
개인인은 성장주 매입 ‘희비 교차’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투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청개구리 투자’를 한 개인들이 울상짓고 있다. 저PBR 종목을 대거 내다 팔고, PBR이 1배 이상인 성장주를 ‘빚투’(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현대차·기아와 금융주 등 PBR이 낮은 종목들을 대거 끌어 담으면서 최근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는 것과도 다른 모습이다.

13일 본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소식이 전해진(1월 17일) 후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 전 종목이 코스피 지수 상승률(8.77%)을 밑돌았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1위는 NAVER로 4059억 원을 순매수했다. 2위는 삼성SDI, 3위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한 엘앤에프로 각각 1766억 원, 1107억 원을 순매수했다. 1위인 NAVER의 경우 6.39% 하락했으며, 삼성SDI는 3.17% 상승했지만, 엘앤에프의 경우 이전성장 기대감까지 사라지며 28.86% 급락했다. 896억 원을 순매수해 4위에 오른 두산로보틱스의 경우 13.87% 하락했고, 5위 현대오트모터(-10.30%), 6위 하이브(-8.05%) 등도 큰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LG에너지솔루션(0.90%) △삼성전기(0.43%) △LG이노텍(-1.71%) △SK이노베이션(4.24%) 등도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넘지 못하거나 오히려 하락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기대감에 PBR이 낮은 종목 위주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지수는 크게 반등했으나 개인투자자들은 이와 반대로 성장주를 사들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개인투자자 상위 10개 종목 중 SK이노베이션(0.56배)을 제외하고 모두 PBR이 1배가 넘는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상위 종목은 △현대차(1위·1조8567억 원) △KB금융(5위·3684억 원) △하나금융지주(7위·2687억 원) △신한지주(8위·2654억 원) △SK스퀘어(10위·2135억 원) 등 저 PBR주들이다.

이는 외국인과도 상반된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외국인들은 코스피 기업들을 장바구

니에 끌어 담고 있다.

실제 외국인들의 투자는 기업의 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낮은 저PBR 종목에 집중됐다.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현대차로 이날까지 총 1조3709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였다. 현대차는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거뒀지만, 주가는 제자리걸음 하면서 대표적인 저평가 종목으로 분류됐다. 외국인의 매수세에 현대차의 주가는 지난달 18만 원대에서 이날 24만9000원까지 올랐지만, PBR은 여전히 1배 미만이다.

외국인들은 현대차 외에도 기아(5496억 원), 삼성물산(3492억 원), KB금융(3050억 원), 하나금융지주(2241억 원), SK스퀘어(1473억 원) 등 PBR 1배 미만의 종목을 대거 사들였다. 이들 종목 대부분이 이달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며, 코스피 상승장세를 이끌고 있다.

조창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저PBR주 중 주가가 상승한 종목과 하락한 종목의 차이는 재무건전성으로, 육서 기라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상민 기자 si2020@

국내 투자자들 ‘일편단심 테슬라’... 주식도 ETF도 ‘줍줍’

개미(개인투자자)들이 ‘테슬라 구애’를 이어가고 있다.

1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1월 29일~2월 12일)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주식은 테슬라로, 순매수액이 4억1387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기간 순매수 상위 5위에는 테슬라 하루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티렉스 2X 롱 테슬라 데일리 타겟 ETF(6534만 달러어치)’가, 6위에는 테슬라 주가가 오르면 1.5배 수익을 올리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볼 1.5X(4579만 달러어치)’가 이란하 자리했다.

해외 주식 보관금액도 테슬라가 1위를 거머쥐었다. 지난 9일 기준 테슬라 보관금액은 109억7925만 달러였다. 그 뒤를 이은 엔비디아(66억3692만 달러)와 애플(47억2326만 달러)를 합친 금액을 소폭 하회하는 수준이다.

테슬라를 전면에 내세운 국내 상장 ETF에도 개미의 순매수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개인은 ‘ACE 테슬라 밸류체인액티브’를 72억 886만 원어치 사들였다. ‘KODEX 테슬라 인컴프리미엄채권혼합액티브’도 65억7593만 원어치 순매수했다.

개인이 테슬라의 성장성을 향한 신뢰

최근 2주간 순매수액 4.1억 弗 1위 ETF 순매수 상위 5·6위도 관련주 ‘성장성 신뢰 굳건... 상승에 베풀’



를 거두지 않고 주가 상승에 베풀는 것으로 풀이된다.

테슬라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시장 기대치에 못미치는 실적을 내놓은 데 이어 ‘올해 매출 낮은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이후 테슬라 주가는 종가를 기준으로 182.63달러까지 추락했다가 190달러 초반대까지 회복하는 흐름을 반복하고 있다.

이날에는 188.13달러에 장을 마쳤다. 연말 261.44달러까지 치솟았던 것을 고려하면 28% 넘게 떨어진 셈이다. 개인은 이런 테슬라 주가 추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는 테슬라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테슬라의 가격 인하 전략이 실패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수요 확대와 마진율 방어에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봤다. 서영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경기 둔화와 소비 여력 감소로 자동차 기업들 간의 가격 경쟁은 심해질 것”이라며 “올해 생산량 증가폭이 제한되면서 모멘텀이 제한됐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전기차 시장 장악과 자율주행 경쟁은 우위는 유효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윤혜원 기자 hwyoon@

‘80대 슈퍼개미’ 태영건설 또 샀다 한투운용 “퇴직연금시장 10년뒤 2.5배 성장”

황순태 삼전 회장 전체 지분 9.79%
윤석민 회장과 0.21%p까지 좁혀
“차익실현 넘어 경영권 영향 가능성”

슈퍼개미 황순태 삼전 회장이 태영건설 지분을 10% 가까이 늘려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황 회장은 8일 태영건설 주식 138만 1000주를 장내 매수했다. 이에 황 사장이 보유한 태영건설 지분은 9.79%로 늘었다. 투자목적은 ‘단순투자’다.

앞서 황 회장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5일까지 태영건설 주식을 꾸준히 사고팔며 지분을 늘렸다. 태영건설 주가가 상승할 때는 지분을 팔고, 하락할 때는 대량 매수하는 식이다.

특히 주가가 3000원대에서 2000원대로 떨어지기 시작한 1월 중순에만 63만 주 넘게 사들였다. 공시에 따르면 황 회장이 사들인 태영건설의 주당 취득 단가는

최소 2200원에서 최대 3303원 사이다. 주당 평균 단가는 약 2591원이다.

이에 황 회장이 보유한 태영건설 지분은 현재 2대 주주인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지분과 0.21%포인트(p) 차이로 좁혀졌다. 태영건설의 주요 주주는 지분 27.8%를 보유한 티와이홀딩스와 윤 회장(10.0%), 황 회장 순이다.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을 위한 투자로 해석한다. 이 같은 매수세는 투자고수로 알려진 황 회장의 오랜 투자법이다. 경영권 위기나 워크아웃 등 리스크에 휩싸인 기업 주식을 싼값에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는 식이다. 다만 황 회장과 윤 회장과는 지분 격차가 상당히 좁혀지면서 이대로라면 황 회장이 2대 주주를 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단순 차익 실현을 넘어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최근 다음투자증권 2대 주주의 지분 확보 때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퇴직연금 시장이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약 2.5배 정도 커진 94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올해 퇴직연금 시장 전망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2024년 퇴직연금시장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시장은 2022년 당시 예상치보다 5조 원 증가한 382조 원을 기록했다. 10년 후에는 약 2.5배 성장한 940조 원 수준으로, 연평균 약 9.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제도별로는 10년간 확정급여형(DB)이 1.9배, 확정기여형(DC)이 2.6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3.8배로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분석됐다.

DB형은 지난해 말 기준 205조 원으로 전체 퇴직연금시장에서 약 5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으나, 2033년에는 387조 원으로 41%까지 비

중이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DC형은 101조 원에서 265조 원으로 규모는 증가하지만, 비중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IRP의 경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76조 원에서 288조 원까지 증가해 약 31% 비중을 차지하며 핵심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운용방법별로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지난해 말 333조 원에서 2033년 670조 원으로, 실적배당형 상품이 49조 원에서 269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DB형 퇴직연금 내 실적배당형 상품 구성비는 적립금운용계획서(IPS) 도입 의무화 등 제도 정착에 따라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김석진 한국투자신탁운용 OCIO컨설팅부장은 “국내 60세 이상 인구가 현재 1370만 명에서 10년 후에는 187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에 대한 니즈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한진칼 들고 F&F 제외 MSCI 한국지수 종목교체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업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2월 정기 리뷰에서 한국 지수에 에코프로머티리얼즈, 한진칼을 새로 편입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편입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전 거래일 대비 21.87% 급등한 20만9500원에 마감했다. 반면 F&F, 호텔신라, 현대미포조선, JYP엔터테인먼트, 펄버비스 등 5개 종목은 MSCI 한국 지수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MSCI는 전체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 편입 종목을 선정한다. 지수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지수 추종)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지수발효일은 다음달 1일이다. MSCI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펀드는 이달 말 종가 부근에서 종목 교체에 나설 예정이다. 손민지 기자 handmin@

코스피 입성 앞둔 APR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도약”

김병훈 대표 IPO 기자회견담회

메디큐브·포맨트·널디 등 보유 매출 연평균 성장률 157% 기록 오늘부터 이틀간 일반청약 진행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이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회견담회에서 미래 사업 비전과 전략을 밝히고 있다. 뉴스시

“혁신 기술이 탑재된 홈 뷰티 디바이스와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해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으로서 자리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김병훈 에이피알(APR) 대표이사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담회에서 미래 사업 비전과 전략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2014년 설립한 에이피알은 뷰티 브랜드 메디큐브, 에이프릴스킨, 포맨트, 글램디바이스와 패션 브랜드 널디, 즉석 포토부스 브랜드인 포토그레이를 보유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설립부터 지속적인 성장세

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3718억 원, 영업이익은 69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9%, 277.6% 늘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에이피알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은 157.4%를 기록했다.

에이피알의 이같은 호실적은 해외에서 인기몰이 중인 ‘메디큐브 에이지알(에이지알)’의 뷰티 디바이스가 견인하고 있다. 2021년 론칭한 에이지알은 지난해 기

에이피알 개요	
에이피알 창립일	2014년 10월
대표명	김병훈 대표 (1988년 11월생, 만 35세)
주요 사업 내용	뷰티(메디큐브, 에이프릴스킨, 포맨트), 이너뷰티(글램디바이스), 패션(널디), 엔터테인먼트(포토그레이)
IPO 일정	2월 14~15일 일반 공모청약 2월 27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정

준 국내외 누적 판매 168만 대를 넘기며 글로벌 인기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지난해 출시 초부터 큰 인기를 끌었던 차세대 뷰티 디바이스 ‘부스터 프로’는 국내에 이어 미국, 동남아 등 해외 출시를 앞두고 있다. 출시 2년 만에 국내 시장점유율(32%) 1위를 차지하며 뷰티 업계 내 홈 뷰티 디바이스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향후 에이피알은 글로벌 1위 뷰티테크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기존 글로벌 시장은 확대하고 향후 유럽과 동남아, 중

동, 남미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신규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김대표는 “미국, 일본, 중국, 홍콩 등 특정 지역 편중 없이 선도 시장에서 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잠재력이 큰 유럽, 중남미, 동남아 지역에도 빠르게 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와 베트남은 자회사를 통해 직접 진출하고 태국, 영국, 인도 등의 국가들은 기업간거래(B2B) 수출을 통해 빠르게 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에이피알은 현재 경기도 평

택에 제2공장을 증설해 대규모 생산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제2공장을 가동할 경우 연간 생산량은 1공장을 포함해 2023년 76만 대에서 올해 340만 대, 2025년 8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대표는 “경기도 평택에 제2공장을 증설해 2025년 연간 800만 대 규모의 생산 능력으로 폭증하는 해외 수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원천 기술 선제 개발로 홈 뷰티 기기 확장뿐 아니라 차세대 피부과 의료기기 영역으로 진출할 것”이라고 했다.

에이피알은 올해 처음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에도 도전하는 기업이다. 총 공모 주식수는 37만9000주다. 총 공모 금액은 947억5000만 원으로 상장 후 시가총액은 1조8960억 원이 될 예정이다. 14일부터 15일 이틀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 진행, 2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대표 주관사는 신한투자증권, 공동주관사는 하나증권이다.

문현호 기자 m2h@



롯데백화점은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김포공항-인천-평촌-동탄-부산본점 등 5개 점포에서 내달 14일까지 ‘하트 투 하트(Heart to Heart: 시시호시 X 피오)’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액세서리, 잡화, 키친웨어, 디지털 등 6종의 시시호시 단독 상품과 50여 종의 밸런타인데이 상품을 판매한다. 시시호시 머그(4만9000원), 시시호시 하트 초콜릿(5만5000원), 미니 토트백(2만5000원) 등이 대표 상품이다. 사진제공 롯데쇼핑

엔데믹에 배달시장 ‘후진’ 오프라인 매장들은 ‘약진’

작년 배달 음식 거래액 0.6%↓ 2017년 통계 작성 이후 첫 감소
맘스터치 강남 매장 오픈하는 등 각종 프랜차이즈들 출점 잇따라

코로나19 엔데믹(endemic·풍토병화)으로 배달 음식 시장이 첫 역성장 기록하면서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도 전략을 바꾸고 있다. 온라인 배달에서 벗어나 오프라인 매장 차별화를 통해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심리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 서비스 온라인 거래액(배달 음식)은 26조4000억 원으로 전년(26조6000억 원)보다 0.6% 소폭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음식 서비스 온라인 거래액이 감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음식 서비스 온라인 거래액은 2017년 2조7000억 원에서 2018년 5조3000억 원, 2019년 9조7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에는 17조3000억 원으로 급증했고, 2021년엔 26조2000억 원으로 또 한번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배달 음식 시장의 성장세가 멈춘 것은 엔데믹 이후 외식 수요가 늘면서 음식을 배달해 먹는 경우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고물가로 배달비를 부담스러워하는 소비자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배달 시장이 쪼그라들 조짐을 보이자 프랜차이즈 업계도 다시 오프라인 매장에 힘을 주고 있다. 주요 상권에 새 매장을 열거나, 두 브랜드를

한 곳에서 운영하는 복합 매장 형식도 많아지는 추세다.

특히 맘스터치는 햄버거 업계 격전지로 떠오른 강남을 비롯해 핵심 상권에 매장을 연이어 열었다. 기존에 주로 골목상권에 매장을 내 동네 수요에 집중해 온 것과는 다른 행보다. 맘스터치는 지난해 10월부터 ‘학동역점’, ‘도산대로점’을 열었고, 최근에는 강남구 테헤란로에 자사 최대 규모 직영점도 열었다. 맘스터치는 올 상반기 명동, 동대문 등 주요 관광지에도 매장을 열 계획이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도 지난해부터 공격적인 매장 출점에 나서고 있다. 메가MGC커피 매장 수는 2022년 말 기준 2173개에서 현재 2757개로 약 600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컵포즈커피도 매장 수를 1901개에서 2442개로 541개 늘렸다. 같은 기간 백다방의 매장수는 약 250개, 더벤티도 150개 증가했다.

매장 강화의 일환으로, 한 공간에 2개 브랜드를 함께 운영하는 복합 매장 사례도 늘고 있다. 롯데GRS는 최근 구로디지털역 매장을 롯데리아와 크리스피크림도넛을 함께 판매하는 매장으로 리뉴얼해 오픈했고, 맘스터치도 치킨과 피자를 함께 판매하는 맘스터치&피자를 운영 중이다.

업계에서는 복합 매장의 경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의 경우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복합 매장 형태가 더욱 적합한 곳들이 많다”며 “기존 매장을 재단장해 복합 매장으로 바꾸는 사례도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ij42@

큐텐, ‘위시’ 품었다

싱가포르 이커머스 기업 큐텐이 유럽과 미국에서 쇼핑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커머스 업체 위시(Wish)를 2300억 원에 품었다.

큐텐은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 콘텍스트 로직(ContextLogic)이 운영하는 글로벌 서비스 위시에 대한 포괄적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시는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기반으로 설립된 쇼핑 플랫폼으로 현재 전세계 200여 개국 소비자들에게 33개 언어로 서비스를 중이다. 8000만 개가 넘는 종류의 상품을 판매·배송하고 있으며 매월 1000만 명 이상의 고객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위시는 모든 카테고리 상품을 현지 소비자에 맞춰서 제안하는 ‘발견형 쇼핑 플랫폼’으로 현지 통화 변환과 결제, 상품 판매와 구매, 배송에 이르는 통합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를 구축해왔다. 이번 인수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인수 200여개국·1000만 고객 확보

로 큐텐은 팬 아시아(Pan Asia)를 넘어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동시에 세계 전역의 주문량과 북미와 유럽에서 활성화된 소비자를 늘릴 발판을 확보했다.

특히 이커머스에 특화된 풀필먼트 운영 역량을 가지고 있는 물류 회사 큐익스프레스의 글로벌 경쟁력에 힘을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큐텐의 계열사인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와 거래하는 모든 국내 판매자들에게 전세계 통합 판로를 여는 동시에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차별화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구영배 큐텐 사장은 “이번 인수로 큐텐과 위시는 전세계 제조, 유통사와 판매자 및 구매자들에게 진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포괄적 쇼핑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위시와 큐텐 그룹의 결합에 구성원들의 열정과 헌신이 더해져 선도적인 ‘글로벌 디지털커머스 플랫폼’이라는 목표 달성에 한층 더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컬리 IPO 성패 가를 ‘PB 확장’ 쿠팡·배민 압도할 수 있을까

외형·내실성장 잡기 위해 ‘뒤통자질’

새벽배송 업체 컬리가 쿡커머스와 편의점 협업 등 신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컬리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경쟁력이 신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를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특히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컬리는 외형·내실 성장 모두를 잡아야 하는 만큼 PB상품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컬리는 올해 1분기 내에 쿡커머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지난해 말 쿡커머스를 신사업으로 낙점한 컬리는 최근 서울 강남 지역에 도심 내 소규모 물류 거점인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MFC)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배달 수요가 많은 강남에서 신선식품, 냉동간편식 등을 30분 내 반길 희망하는 소비 수요를 공략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컬리는 편의점 CU와 함께 ‘특화 편의점’ 2호점 개설 지역을 물색 중이다. 지난해 12월 말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선보인 CU·컬리 특화 편의점 1호점 반응이 예상보다 긍정적이었기 때문이다. BGF리테일에 따르면 특화 편의점 내 식재료 매출 비중은 전체의 약 10%다. 일반

CU 편의점 점포의 식재료 매출이 2%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컬리의 상품이 식재료 매출을 견인했다는 게 업계 평가다.

업계는 컬리의 쿡커머스, 특화 편의점과 같은 신사업 성패를 PB상품이 가를 것으로 본다. PB상품은 유통과정을 줄이고 마케팅 비용까지 덜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도 높은 마진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차별화된 PB상품으로 충성 고객까지 확보할 수 있다.

쿠팡이 PB 굶품, 탐사 등으로 충성 고객을 모으고 매출을 끌어올린 게 대표적인 사례다. 쿠팡의 PB 자회사 씨피엘비(CPLB)의 2022년 매출은 1조35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4%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23억 원으로 196% 증가했다.

쿡커머스 핵심 경쟁사로 꼽히는 배달의 민족의 경우 2022년 ‘배민이지’ PB를 낸 데 이어 최근 프리미엄 PB ‘배그니치’를 론칭하기도 했다.

컬리는 PB상품 경쟁력에 자신있다는 입장이다. 컬리에 따르면 지난해 단일 상품 판매량 상위 10위권 중 8개가 컬리 PB 상품으로 나타났다. 2021년 10개 안팎이던 컬리의 PB는 현재 20개로 늘어난 상태다.

유승호 기자 peter@

〈배우자〉

전관예우·증여세 탈루·尹과 인연... 與野 공방 예상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내일 인사청문회... 쟁점은?

박성재(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 서울고검장으로 퇴직한 후 전관예우에 따른 고소득 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박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박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후임으로 박 후보자를 지명한 지 20여 일 만이다.

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가 퇴임 직후 2년간 약 30억 원의 수입을 올린 점,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 윤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원의 서면 질의서에는 위 내용을 포함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담겼다. 박 후보자는 이날 서면 답변서에서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후보자는 퇴임 직후인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박성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2020년 8월부터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있다. 그는 퇴임 후 5년간 46억 원의 수입(매출)을 신고했는데, 특히 퇴임 직후인 2018~2019년에 매년 약 15억 원의 수입을 올려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상대적으로 고소득이라는 지적은

고검장 퇴임 뒤 5년간 46억 벌어

“부정청탁 無...증여세 필요요치尹과 자주 연락하는 사이 아냐”
수사절차 지연은 검수완박 탓

‘김건희 여사 명품백’엔 말 아껴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사건 선임과정에서 광고하거나 사무장을 고용한 바 없고, 후배들에게 부정 청탁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본 바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아파트 구매 과정에서 수입이 없던 아내와 공동명의로 구매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최초 아파트 구매 시 부부 공동 자금으로 구매해 후보자 단독명의로 했으나 2018년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며 “세법상 기준이 다르다면



논란이 없도록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의 과거 인연이 장관 인선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박 후보자는 답변서를 통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사실이 있고, 대통령과는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라면서도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는 “후보자로서 개별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관해서는 입장

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묻자 “수사권과 소추권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형식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에 대한 신뢰도 저하 원인으로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절차 지연’을 꼽았다.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된 후 지연·부실수사 논란, 범죄대응능력 약화 등에 따른 국민보호 공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워진 형사절차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 고위직으로 퇴임한 경우 변호사 수입은 초반에 확 늘어나는 게 맞긴 하다”며 “증여세 문제도 있지만,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 평가를 놓고도 야당에서 지적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이현 기자 spes@

서울서 태어나면 1인당 100만원

소득기준 없이 모든 산모 지원
6개월 서울시 거주 요건 없어

서울시가 모든 산모에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지급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아깝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6개월 서울시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에게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쌍둥이를 낳은 산모는 200만 원, 삼태어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관리·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시가 지난해 9월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사업을 시행한 이후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한 산모들의 민원이 월평균 약 30회 이상 발생했다. 이에 시는 많은 산모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시행 4개월 만에 1만5000명 이상이 신청했으며, 바우처 사용건수는 총 5만3296건으로 나타났다. 바우처 사용처는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붓기관리·탈모관리·산후요가 및 필라테스 등 순이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 4개월 동안 사업을 시행하면서 거주요건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산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재빈 기자 chaebi@



어떤 필통 살까 개학을 앞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동 문구완구시장에서 한 어린이가 학용품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백현동 재판 촉각

부동산개발 특혜 등 청탁 받고
이재명 측근 정진상에게 로비
알선·청탁 대가로 74억 수수
법원 “도주 우려” 보석도 취소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백현동 개발바리 의혹 관련 첫 선고인 만큼 향후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66억5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 회장)로부터 백현동 사업의 용도지역 변경, 주거 용지 비율 확대,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추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와 관련해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남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시 정책비서관 정진상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처리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김 전 대표의 알선 혐의를 인정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 및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적극적인 알선을 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 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바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은 사업에 아무런 전문성이 없고 공

무원 대관작업을 하는 브로커, 로비스트로서 동업자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알선·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면 피고인이 정바울로부터 74억5000여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도주할 우려가 염려된다”면서 김 전 대표의 보석 석방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전 대표는 선고 직후 재구금됐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정 회장으로 부터 백현동 및 한국식품연구개발원부지 약 11만㎡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청탁·알선 등을 대가로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함박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백현동 땅을 사들인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 정 회장이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던 김 전 대표를 일종의 로비스트로 영입해 각종 이권을 제공했다고 봤다. 이 대가로 백현동 땅을 기존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상향하고 높이 50m의 불법적인 용역을 설치하는 등 개발특혜를 얻었다는 것이다.

박꽃 기자 pgot@

대학 2학년부터 가능했던 전과, 1학년도 허용 의대 교육과정 ‘예과+본과 6년 내’ 자율 운영

그동안 대학 2학년부터 가능했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구성됐던 의과대학 수업은 ‘예과+본과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중점 방향은 △대학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학생의 권익 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등이며, 총 115개 조문 중 40개 조문이 개정됐다.

먼저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위해 대학에 학과·학부를 두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

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전과 제한도 완화된다. 그동안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되도록 학년 제한을 폐지했다. 아울러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의 발전전략에 따라 주 9시간의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현경 기자 son89@

“어머! 이걸 사야해”... SEOUL MY SOUL 굿즈, 세계인 홀리다

DDP·성수 팝업스토어 인산인해 후드티·서울라면 등 연일 품절 관광객 “마그넷 너무 예쁘네요”

오세훈 “소통공간 많이 만들 것”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스토어에 있는 '서울 마이 소울' 굿즈숍.

서울시의 새 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을 기념하는 굿즈들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착용한 후드티부터 서울라면까지 다양한 굿즈 상품들은 연일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굿즈를 선보인 광화문 크리스마스마켓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스토어, 서울 굿즈팝업스토어에서는 시민들의 방문이 계속되며 다양한 굿즈들이 연일 매진되고 있다.

현재 시는 온·오프라인 상으로 서울 굿즈를 판매하고 있다. 실물로 서울 굿즈를 만날 수 있는 DDP 디자인스토어에는

후드티, 서울 달고나 DIY 세트, 볼캡, 코듀로이 파우치, 도넛 머그컵, 예코백, 메모지 등 서울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굿즈들이 마련됐다.

6일 방문한 DDP 디자인스토어 '서울 마이 소울' 굿즈 코너에서도 서울 시민들은 물론이고 외국인들도 '서울 마이 소울' 굿즈 코너를 찾아 제품을 구경하고 있었다. 서울 마이 소울의 로고가 그려진 티셔츠를 사이즈별로 거울 앞에서 몸에 대

보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날 만난 영국인 에이미(33)는 “평소에 다양한 나라를 다니면서 마그넷도 모으고 머그컵 사는 걸 좋아하는데 '서울 마이 소울' 굿즈들이 너무 예쁘다”라며 “전날 산 올라가서 야경을 봤는데 풍경도 담아낸 마그넷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시가 서울의 맛을 홍보하기 위해 풀무원과 함께 개발해 출시한 '서울라면'은 품절된 상태였다. 서울라면은 ‘건강하고 매

력적인 서울 사람들이 먹는 라면’이라는 목표 아래 국물 라면과 짜장 라면 두 가지로 출시됐다. 일반 라면과 달리 튀기지 않은 건면을 사용하고, 가격은 4개 기준 5450원이다.

김수희(36) 씨는 “지난 주말에 성수에 열린 서울마이소울팝업스토어에서라면을 못 사서 왔더니 여기도 품절 상태”라며 “그때 아이한테 캐릭터 동행이 인형 키링을 사줬는데, 오늘은 매력이를 사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MZ세대들의 핫플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도 서울 굿즈는 독특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시는 ‘서울 라이프’를 주제로 성수동에서 이달 1~4일 나흘간 ‘서울 굿즈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 서울 굿즈팝업스토어에는 하루 평균 약 4000여 명, 총 1만5000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팝업스토어는 서울라면 시식 등 각종 체험이 가능한 야외존도 운영했다.

당시 행사장에는 아이들과 함께 찾아온 가족들부터 외국인들까지 다양각색의 시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캐나다에서

온한 관광객은 “성수를 지나가다 방문했는데, 사진 찍을 곳이 많아 너무 좋고 굿즈도 너무 예쁘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시 서울 굿즈팝업스토어를 방문해 “서울 라면을 통해 우리 서울시민뿐 아니라 세계인이 서울의 맛을 맛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사무실 내에서 글로써 하는 소통에서 벗어나 이처럼 서울 곳곳에서 시민과 직접 재미있게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시는 서울 마이소울의 굿즈 상점 입점 등을 통해 서울의 굿즈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한 시는 현재 DDP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상품 외에도 계절별 및 어린이날·크리스마스 등 기념일을 겨냥한 온라인 한정판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 굿즈 관련 팝업스토어는 확정된 바 없지만, 향후 성수동 센스에 한 코너로 입점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다양한 서울 굿즈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김채빈 기자 chaebi@

“초등생 통학길 안심하세요”... 양천구, 교통 안전지도사 배치

14개 학교에 ‘안심 등하굣길’ 조성

양천구가 관내 14개 초등학교에 ‘교통 안전지도사’를 배치, 안심 등하굣길을 조성한다.

13일 양천구는 양강초, 갈산초, 신원초 등 14개 학교에 교통안전지도사 28명을 배치해 저학년 학생 140여 명의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책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어린이 교통사고 및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2012년부터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교통지도사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등하

굣길에 동행해 안전을 살핀다. 노선별 8명 정도로 구성된다.

올해는 학교 여건을 반영하고, 위험지역 거점 배치도 새롭게 병행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교통안전지도사 덕분에 아동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매우 커 학부모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며 “지난 10여년간 300여 명의 교통안전지도사를 선발했으며 이들이 지도한 학생들은 22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새학기에 발생하기 쉬운 스톱존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작년 교육경비보

조금 신규사업으로 시행한 ‘등하교 안전 지원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역 초·중·고 20개교를 대상으로 자체 안전지도사 배치를 위한 예산 1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재양천구청장은 “신학기에 특히 발생하기 쉬운 스톱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등하교 교통안전 사업을 세심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어린이 통학로의 위험요소와 안전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피고 점검해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가 마음 편히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영 기자 jung2@

올여름 집중호우 걱정 없는 금천구

수로 스마트 준설시스템 특허

서울 금천구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계곡수로 스마트 준설 시스템’을 특허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계곡수로 스마트 준설 시스템’은 집중호우 시 계곡 수로에 쌓인 토사를 신속히 제거해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장치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가 심해지면서 산지에 인접한 주

택가는 계곡에서 흘러넘치는 물로 인해 피해 우려가 컸다. 또한 산림 내 설치된 사방시설의 퇴적용량에 한계가 있었고 작업 장비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인력에 의존한 준설작업을 해야 했다.

금천구가 개발한 시스템은 퇴적물 여과 시스템과 자동준설 시스템을 접목했다. 기존 계곡 수로에 스크린 필터를 설치해 퇴적물을 걸러내고 퇴적된 토사와 이물질은 준설용 상자에 담겨 크레인을 통해 옮겨진다.

김채빈 기자 chaebi@

굿네이버스로
Good Neighbors-ro

굿네이버스

평범한 일상에서도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만들기로
그렇게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기로
오늘도 우리는,
**굿네이버스로
향합니다.**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입니다.

좋은 이웃이 되고 싶다면?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세계 초일류 기술 골프채 부문

- ① 고반발 기술 1위 → C.O.R 0.962 초격차
- ② 경량화 기술 1위 → 드라이버 205g 30%↓
- ③ 최적화 기술 1위 → 20,684,160 가지 스펙 초격차
세계적인 프로처럼 개개인의 스윙에 딱맞는 스펙의 클럽을 제공



예약제 우선 (본사 매장)
가격 영원 불변 정책



새 캐디와, 새 후원사와... 황제의 귀환

우즈, 10개월 만에 PGA투어
내일 개막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베테랑 캐디' 랜스 베넷과 호흡
테일러메이드와 의류 후원 계약
우즈 맞춤 '선 데이 레드' 입기로



테일러메이드 골프의 새로운 의류 및 신발 브랜드 '선 데이 레드(Sun Day Red)' 론칭 행사에 참석한 타이거 우즈. 로스앤젤레스/AP연합뉴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돌아왔다. 열 달만의 정규대회 복귀다.

우즈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리비에라 컨트리클럽(파71)에서 개막하는 PGA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 출전한다. 이 대회는 타이거 우즈 재단이 여는 대회로 총상금 2000만 달러가 걸려 있다.

우즈가 정규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지난해 4월에 열린 마스터스 토너먼트 이후 10개월 만이다. 우즈는 이 대회 3라운드에서 발목통증을 호소하며 기권한 뒤 발목 수술을 받은 바 있다. 발목 수술 이후 지난해 12월 타이거 우즈 재단이 주최한 히어로 월드 챌린지와 PNC 챔피언십에도 출전했지만, 이 대회들은 PGA정규투어대회가 아닌 이벤트 대회였다.

우즈의 PGA투어 복귀 소식과 함께 새로운 캐디 기용 소식도 화제가 되고 있다. 미국 골프매체 골프워크에 따르면 우즈는 이번 대회는 물론 플레이어

스 챔피언십, 마스터스까지 베테랑 캐디 랜스 베넷과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국내 팬들에게 최근까지 임성재와 함께한 캐디로 알려진 베넷은 PGA투어와 LPGA투어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다. 임성재의 2020년 슈리리언스 질드런스오픈과 2021년 혼다클래식 우승을 도왔을 뿐 아니라 2012년 쿠차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데도 함께했다.

우즈는 투어에 앞서 새로운 후원사도 공개했다. 우즈는 13일(한국시간) 테일러메이드의 골프 의류 '선 데이 레드'(SDR)를 입고 경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27년간 인연을 이어오던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골프 의류와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 테일러메이드와 손을 잡고 자신의 존

재감을 드러낼 브랜드를 출범시킨 것이다. 선 데이 레드의 로고는 우즈를 연상시키는 호랑이 형상을 하고 있다.

올해 만 48세가 된 우즈의 결연한 의지가 엿보이나 쉽지 않은 투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PGA투어에는 세계 랭킹 10위 이내 선수 가운데 9명이 출전하기 때문이다. 통산 82승이라는 PGA투어 최다승 타이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우즈도 이 대회에서 우승한 적은 없다. 다만 지난해 챔피언인 스페인의 온 람과 2022년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칠레의 호아킨 니만이 LIV 소속이 되며 이번 투어에 불참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안병훈과 임성재, 김시우, 김주형 등 한국 선수들도 출전한다. 최소라 기자 choir@

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연임 않겠다" 의사 밝혀 이사회, 차기 회장 윤진식 前 산업부 장관 추천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회장직을 내려놓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회장단은 차기 무역협회장으로 윤진식(사진)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추천했다.

13일 무역협에 따르면 구 회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개최된 무역임시 회장단 회의에서 LS그룹 이사회 의장 역할에 전념하겠다고 밝히며 협회 회장직을 연임하지 않기로 했다.

구 회장은 "LS그룹이 투자증권회사 인수, 새만금 이차전지 공장 투자 등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시기에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한일 경제계 교류 확대를 위한 역할과 고려대 발전위원장 등 쟁겨야

할 일들이 많아 무협 회장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무협 회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윤진식 전 산업부 장관을 차기 무역협회장으로 추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윤 전 장관은 산업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무역과 통상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제와 금융 정책을 두루 다뤄본 분"이라며 "폭넓은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공급망 재편, 각종 규제 해소 등 한국 무역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추천 사유를 밝혔다.

한편 무협은 16일로 예정된 회장단 회의 및 이사회를 통해 회장 후보 추천을 확정하고 27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윤 전 장관을 공식 선임할 예정이다.

이민재 기자 2mj@

2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이호원 그룹장·모형규 CTO

〈삼성전자〉 〈대영아이오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월 수상자로 삼성전자의 이호원(왼쪽 사진) 그룹장과 대영아이오티의 모형규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호원 삼성전자 그룹장은 모바일 정보·기술(IT) 분야 전문가다. 그는 폴더블폰의 핵심 부품인 힌지(경첩)와 IPX8 등급 방수 기능을 개발해 갤럭시 Z 시리즈 내구성을 높이고 폴더블폰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그룹장이 개발한 U자형 힌지는 세계 처음으로 폴더블폰을 원하는 각도로 세우고 이물질 유입을 막



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모대영아이오티 CTO는 주차 관제 제조 분야 전문가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주차 관제 시스템과 위치 조정 기능을 갖춘 스마트 무인정산기를 개발해 차세대 주차 플랫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자국민 개인정보 유출 이유로 틱톡 금지하더니... 바이든, 되레 자신의 선거 운동에 활용

자국민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소셜미디어 틱톡 사용을 금지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되레 본인의 선거 운동에 활용해 논란을 빚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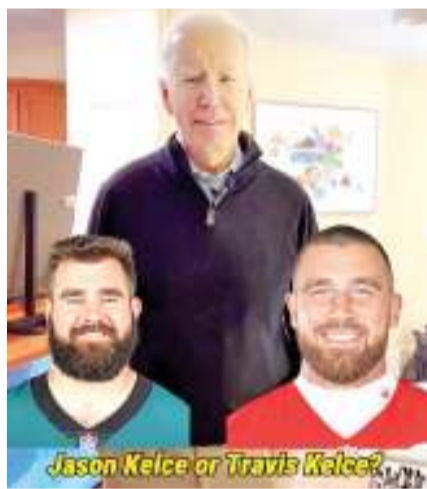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선거 운동팀은 전날 저녁 틱톡에 첫 번째 영상을 게재했다. 26초 길이 영상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짧은 인터뷰가 담겼다. 미국프로 풋볼(NFL) 슈퍼볼 경기에 맞춰 바이든 대통령이 응원하는 NFL 팀과 좋아하는 선수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영상은 하루 만에 550만 회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틱톡 사용은 그간 틱톡을 금지했던 행보와 상충해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해 연방 정부와 관련된 모든 전자기기에서 틱톡을 퇴출했다. 중국 기업이 만든 틱톡을 사용하면 자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바이든 정부의 지침에 따라 민주당 성향의 주 정부들과 일선 대학들도 틱톡 금지령에 동참했다.

그렇던 정부가 틱톡을 이용한 배경에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NBC뉴스가 지난달 벌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11%가 18~34세이며, 이들은 하루에 한번 이상 틱톡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바이든 대 트럼프' 양자 대결을 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44% 대 42%로 간신히 우세한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틱톡 영상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 바이든 캠페인 틱톡

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호도 조사에서 민주당(47%)이 공화당(30%)을 여유 있게 앞선 것과 대비된다. 심지어 젊은 유권자의 23%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대영 기자 kodae0@

패션그룹형지, 이종범 부회장 선임

패션그룹형지는 이종범(사진) 전 한국씨티은행 부행장을 부회장으로 영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종범 부회장(68세)은 1956년생으로 197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0년부터 제일은행을 시작으로 한미은행 런던지점장, 한국씨티은행 대기업금융담당 부행장으로 은행에서 34년을 근무하는 등 재무 전문가다. 이 부회장은 2015년 형지그룹이 에스콰이어를 인수할 때부터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과 인연을 맺어왔다.



김지영 기자 kij42@

르노코리아, 브리농 디렉터 영입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 개발을 위해 소프트웨어 및 전기·전자 전문가인 레지스 브리농(사진)을 2월부터 새로운 디렉터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르노테크놀로지코리아 시스템엔지니어링 오퍼레이션 수장으로 새로 영입된 레지스 브리농 디렉터는 글로벌 자동차 공급기업 발레오(Valeo)에서 연구소장을 역임했다. 브리농 디렉터는 발레오에서 BMW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개발한 바 있다.



강문정 기자 kangmj@

인사

-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무역안보심사과장 오종희
-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직업건강증진팀장 신옥균 ◇중양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손성길
-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 △어촌양식정책관 서정호
-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승진 △상생협력정책관 김지현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노용석 △창업정책관 조정원 △벤처정책관 김봉덕 △특구혁신기획단장 이현조 △소상공인정책관 이대건 △대구

- 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은청 △경기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조희수 ◇과장급 승진 △기업구조개선과장 예우영 △입지환경개선과장 오보연 △청년정책과장 황선희 △투자관리감독과장 이지호 △소상공인제도약과장 장상만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김주화 △인력정책과장 권영학 △지역혁신정책과장 임상규 △특구운영과장 류선미 △특구지원과장 유환철 △디지털소상공인과장 김민지 △지역상권과장 김운우 △내수활성화추진단장 이정훈 △사업영역조정과장 우경필 △소상공인손실보상과장 이정일 △안전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강해수 △강원지방중

- 소벤처기업청장 이왕재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장 전세희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장 서정연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장 이순석 ◇장관정책보좌관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곽재욱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임정희
- ◆다올투자증권 〈신규 선임〉 ◇실장 △리스크심사실장 전무 이종서
- ◆마스틴투자운용 △전략기획부문 부대표 윤자경
- ◆GC녹십자 △RED(초기연구개발) 부부장 마성훈

부음

- ▲김재숙 씨 별세, 이도관(서울시도시교통실 근무)·도운(대통령실 홍보수석 비서관)·미영(블루게일 대표이사) 씨 모친상, 김경미(한국증권법학회 사무국장)·윤혜정(삼성전자 부장) 씨 시모상, 박원원(로이스컨설팅 대표이사) 씨 장모상 = 1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5일 오전,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02-2227-7550
- ▲윤선희 씨 별세, 김경철·경호(금호건설 법무담당 상무) 씨 모친상 = 13일,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14호실, 발인

- 15일 오후 1시, 02-2227-7597
- ▲강형희 씨 별세, 김동균·동현·수연 씨 모친상, 성기승(한화투자증권 HFC강남프리미어 상무) 씨 장모상 = 12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5일 오전 8시, 02-2072-2010
- ▲조경자 씨 별세, 백종욱(KBC광주방송 이사) 씨 장모상 = 13일, 전남 무안 제일병원 무안장례식장, 발인 15일 오전 8시 30분, 061-454-9340
- ▲부영애 씨 별세, 임우식(예림인터리어 대표)·의택(전자신문 인터넷 부장) 씨 모친상 = 12일,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 02-860-3508

인재육 칼럼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자유기업원 이사장

‘러시아경제가 성장했다’는 오판

아진다. 이렇게 측정된 GDP를 지출 GDP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의 지출, 그리고 순수출(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의 합으로 측정된다. 이 지출 GDP를 기초로 하여 정부지출을 늘리면 GDP가 증가한다. 전쟁 중인 러시아경제가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국방비를 2배 이상 늘렸기 때문이다.

생산 GDP와 지출 GDP가 같다는 것은 회계상의 항등식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많은 경제전문가가 이 항등식을 인과관계 이론으로 변질시켜 정부지출을 늘려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에 사용하고 있다. 단순히 GDP 통계가 증가했다고 해서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 증가하고 그 품질이 개선되어야 국민의 삶이 개선된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경제성장이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 부를 창출하는 주체는 민간이지 정부가 아니다.

GDP 통계치만을 보면 경제 상황을 오판하기 쉽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차 세계대전이 대공황을 끝냈다는 주장이다. 대공황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로 1929년 3.2%였던 실업률이 1933년 25%까지 증가했고, 1940년까지 계속 두 자리 수 자를 기록했다. 그러다가 전쟁 발발 후 실업률이

1944년 1.2%로 하락하였고, 1940~1943년 동안 GDP가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만 보면 2차 세계대전이 대공황을 끝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쟁 기간에 실업률이 급감한 것은 징집의 결과였고, GDP가 급증한 것은 전쟁 수행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 때문이었다. 정부지출 증가 때문에 GDP는 증가하였지만, 실제로는 민간의 소비와 투

전쟁중 국방비늘려 ‘GDP증가’ 착시 통계치만 봐선 경제상황 오판 심상 부없는 성장...케인스학 오류 간파를

자가 하락했다.

GDP 통계치만 보고 경제 상황을 오판한 또 다른 사례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사무엘슨이다. 그는 자신의 유명한 경제원론 교과서 1961년 판에서 소련의 GNP가 미국의 절반 정도였지만 소련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1984년, 늦어도 1997년에는 소련 GNP가 미국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었다. 예측이 자주 빗나가자, 나중에는 2002~2012년으로 추월 시점을 미루기까지 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수석 경제자문으로 활동했던 래리 서머스는 2011년 일본의 고베 지진이났을 때 “재난이 발생하면 복구과정이 진행되면서 역설적으로 GDP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고 했다. 또 다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2001년 9·11 테러가났을 때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깜짝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대공황을 끝낸 진주만 공습과 같은 테러 공격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썼다.

모두 GDP라는 통계치에 기초한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들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의 근원지가 있다. 바로 케인스 경제학이다. 케인스는 ‘일반이론’에서 “피라미드 건설, 지진, 심지어 전쟁까지도 부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전쟁, 테러,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한 정부지출은 다른 생산적인 활동에 쓰일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 정부지출이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 테러, 지진은 결코 번영을 낳지 않는다. 이것이 상식이다. 정말 케인스 경제학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환영하고,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기를 학수고대하면 된다.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인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WorldEconomicOutlook)’에서의 핵심스러운 데이터가 눈에 띈다.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이 작년엔 3.0% 증가했고 올해 2.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러시아는 지금 3년째 전쟁 중이다. 전쟁은 그동안 축적된 부를 소모하는 것이지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전쟁 중인 러시아경제가 성장했다니, 이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상함의 키는 GDP 측정에 있다. GDP는 일정 기간에 생산된 모든 최종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다. 그렇게 측정된 GDP를 생산 GDP라고 한다. 한편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구성원 누군가에 의해 구매된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구매를 위해 지출한 총금액은 생산 측면에 측정된 금액과 같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 미스터리

2022년 서울에서 신규 자원회수시설 부지로 상암동이 선정되자 마포구가 전쟁을 선포한 건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친환경’ 미사여구로 ‘이미지 세탁’을 했어도, 자원회수시설은 아직 쓰레기 소각장의 탈을 벗지 못했다. 그런 시설이 이미 있는 마포구에 하나를 더 짓겠다고 하니 ‘독박’ 아닌가, 반발도 당연하다 싶었다. 이른바 ‘협오시설’ 추진 과정에 으레 등장하는 뻘한 레퍼토리를 상상했다. 단골 소재는 우리 지역만 아니면 된다는 ‘남비(Not In My Backyard)’. 그런데 마포구의 항변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었다. 어디에도 새로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 반전이였다.

마감 후

김서영
사회경제부 기자



자연스레 궁금증이 생긴다. 진작 현대화를 진행했으면 될 일 아닌가. 시간이 촉박했다고 하지만,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추가 소각장 확보가 필요하다는 언급은 2014년 서울시 문건에 등장한다. 더구나 그 문건엔 신규 소각장보다 기존 시설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쓰여 있다. 과거 설계된 소각로가 쓰레기 성상 변화(비닐, 플라스틱 증가)를 감당하지 못해 소각 효율이 낮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다. 현재 서울시 4곳의 광역자원회수시설 가동률은 평균 80%로, 폐기물관리법이 보장하고 있는 130%에 못 미친다. 민간의 경우 꾸준한 시설개선과 기술력으로 법정 가능 최대치까지 운영하고 있다.

‘10년’이란 시간표도 명쾌하지 않다. 서울시는 현재 마포를 제외한 3개 시설의 현대화 방식과 비용, 기간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는 것. 현대화 추진에 걸리는 시간 계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마포구 기존 시설의 가동을 10년 후 중단하겠다는 계획이 먼저 나온 셈이다. 이런 모순이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건설 추진 ‘참똥’을 헛갈리게 만들고 있다.

새 소각장보다 쓰레기 감량책 더 절실

극심한 기상이변이 지구의 습통을 조이기 시작한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노력은 ‘필연’이다. 생산, 사용, 처리 과정에서 엄청난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쓰레기 정책의 답은 하나뿐이다. 최대한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증가로 쓰레기 감량이 버거운 건 맞지만, 무서운 속도로 진격 중인 기후재앙은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당장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겨 버려지는 플라스틱 분리수거만 잘 해도 소각량을 대폭 줄일 수 있다. 20리터 기준 종량제 봉투값 490원. 쓰레기 버리는 부담이 사실상 없는 서울에서 감량이 절실할 리 없다. 서울시는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는 ‘똥심’만큼, 쓰레기 감량에 ‘진심’이었는가. 0jung2@

시설개선案 무시하고 신규 건설 추진

쓰레기 감량의 불씨를 댕긴 건 직매립 금지였다. 2021년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수도권은 2026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땅에 바로 묻을 수 없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울시는 신규 소각장 건설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계산은 단순했다. 현재 매립량이 일평균 900톤이고 소각장 가동일수가 연간 300일쯤이니, ‘1000톤/일’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마포구의 생각은 달랐다. 기존 4곳(마포, 강남, 양천, 노원)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설비를 개선해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쓰레기 감량 정책까지 병행하면, 직매립 금지분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굳이 1조 원 넘는 비용을 들여가며 소각장을 새로 지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가정법’을 피하고 싶었을지 모른다. 직매립 금지 타이머는 돌기 시작했는데 쓰레기가 줄지 않으면, 기존 소각장 개보수로 감당이 안되니 신규 소각장이라는 ‘보험’ 하나쯤 필요했을 수 있다. 문제는 ‘보험설계’ 과정에 의문이 꼬리를 문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공식·비공식적으로 밝힌 소각장 운영 계획에 따르면 마포구의 두 곳을 동시에 가동하는 향후 10년간 강남, 양천, 노원 소각장이 순차적으로 ‘현대화’된다. 현대화 종료 후 마포구의 기존(750톤/일) 소각장은 가동을 멈춘다. 그곳에서 태우던 쓰레기는 현대화를 통해 성능이 개선된 강남, 양천, 노원 소각장으로 보내진다. 결국, 세 곳의 시설 현대화로 하루 750톤을 더 소각할 수 있다고 가장한 셈이다.

ELS 사태, 금융사만 뉘달해서야

노트북 너머

권태성
자본시장부 기자



절대 즐겁지 않은 도미노 게임이 시작했다. 우려하던 대로 홍콩발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이 1월부터 시작됐다. 1월 4대 시중은행의 만기손실액만 3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올해 전제로는 15조 원이 만기 도래해 7조 원 내외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사태에서도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졌다. 금융당국은 홍콩 ELS 불완전판매 금융회사에 엄정 대응하며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금융회사에만 있는 것처럼 비치고 있지만, 당국과 소비자도 자유로울 순 없다. 은행 ELS에 가입한 투자자의 90% 이상은 투자경험이 있는 재투자자로 파악된다. 한번 ELS에 가입해 만기에 수익을 냈던 투자자가 같은 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금손실이 나는 상품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과거의 투자 결과에 따라 금융상품의 투자 수요가 결정되는 경향을 보이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금융상품도 예외는 아니다.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고, 수익도 손실도 그 선택의 일부다. 파생결합상품은 수익률이 높을

수록 손실 위험도 커진다. 특히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 규모가 커지는 꼬리위험(tail risk)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투자를 망치는 건 인간의 욕망이다. 높은 수익률 욕심에 장밋빛 전망만 생각하고 투자에 뛰어드는 행위는 금물이다.

전제 조건이 있다. 투자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개별 발행사는 각사의 상황은 물론 시장 전체 상황을 고려해 ELS 규모와 운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위험관리를 지속해 나가며 ELS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금융당국도 ELS 시장 모니터링과 함께 시장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회사만 뉘달한다고 해서 사태가 해결되는 건 아닐 것이다. tskwon@

이투데이, 말투데이

☆ 조용기(趙鏞基) 명언

“누가 속옷을 훑치려 하거든 걸옷까지 내어주라.”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설립한 목사다. 자신의 말을 즐기고 예수의 말을 앞세워 성자의 삶을 산 조 목사의 어록은 없다. 저 말은 평소 그가 가장 좋아해 자주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다. 오늘날은 그가 태어난 날. 1936~2021.

☆ 고사성어 / 녹림(綠林)

한서(漢書)에 나오는 도적 떼를 이르는 말이다. 전한(前漢) 말기에 왕위를 찬탈해 신(新)나라를 세운 대사마(大司馬) 왕망(王莽)이 급격한 개혁정책을 펴자 백성은 혼란과 생활고에 빠졌다. 새 왕조를 원망하는 왕광(王匡)·왕봉(王鳳) 일당이 난민을 모아 녹림산(綠林山)을 근거지로 반기를 들어 관군과

싸웠다. 5만이 넘는 반군은 유수(劉秀·光武帝) 군과 합류해 왕망을 위협하는 세력을 이뤘다. 녹림은 원래 산 이름이지만, 왕광의 무리가 굶주린 백성을 모아 이곳을 근거지로 도독질했기 때문에 이후부터 도독의 소굴을 녹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 시사상식 / 중요사건 서술법(Critical Incident Appraisal)

인사평가 방법의 하나다. 관리자가 일상적인 업무 상황에서 피평가자의 특별한 긍정적, 부정적 행동을 관찰해 기록한 결과를 토대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평가 기간 내내 이루어진 중요한 사건들을 모두 파악할 수 있게 해줘 피평가자들이 잘하고 있는 점과 못하고 있는 점을 피드백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여러 피평가자를 비교해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중앙은행에만 짐 떠넘겨선 안돼

가상자산을 대표하는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칭한 베일에 가려진 인물이 "중앙은행과 정부가 화폐 발행을 독점하고 마구 찍어내면서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신뢰를 잃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었다. 그런 비트코인마저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움직임에 가격이 이리저리 요동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현 경제와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바야흐로 연준을 필두로 한 전 세계 중앙은행의 전성시대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투자자들의 모든 눈과 귀는 중앙은행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새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3월 기준금리 인하설'을 일축하자 미국 증시 나스닥지수가 2% 이상 빠지는 등 시장이 요동친 것도 중앙은행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시장이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준 최신 사례였다.

이렇다 보니 연준 등 중앙은행들이 배후에서 막대한 권력을 휘둘러 세계 경제와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음모론이 단골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 정부가 중앙은행들에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경제적 숙제를 떠넘기는 것이 중앙은행들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다.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중앙은행들이 '올며 겨자 먹기'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이라는 미증유의 사태와 이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보면 정부가 얼마나 중앙은행에 의존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기준금리를 5.25%포인트(p) 인상했다. 이는 약 4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린 것이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등 다른 중앙은행들도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공

데스크 서약

배준호
국제경제부장



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섰다.

이렇게 중앙은행들이 간박하게 움직이는 동안 슬프게도 각국 정부의 물가를 잡으려는 움직임은 이들 중앙은행만큼 눈에 띄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세계를 뒤흔들었던 인플레이션은 코로나19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이 강하게 압박을 받은 것에서 비롯됐다.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은 근본적으로 금리를 조절해 수요를 억제하거나 반대로 풀어 물가를 제어하는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 각국 정부가 똑바로 일하지 못하니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

며 그만큼 시장도 중앙은행의 행보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쏟게 된 것이다.

아무리 중앙은행의 정책수단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실물경제가 금리에 지나치게 좌우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미국 경제가 연착륙으로 순조롭게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금리 환경에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뛰고 카드빚이 느는 등 위험요소도 커지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결국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정부가 중앙은행에만 너무 많은 짐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한 주역으로 사람들은 바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을 떠올린다. 당시 연준 의장이 누구인지는 거의 모른다. 파월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전 세계 시장이 요동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중앙은행들이 너무 큰 힘을 갖는 것이 그토록 걱정스럽다면 정부가 중앙은행에 모든 짐을 떠넘기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도록 비판과 감시를 해야 할 것이다. baejh94@

사설

안보와 경제 두루 챙길 '컨틴전시 플랜'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어제 미국 대선에 따른 통상 환경의 급변 가능성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일반관세율 인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축소 등 예상 시나리오에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미대선이 국내 경제의 지축을 흔든 초대형 변수가 되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특히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후폭풍이 어찌 거셀지 알 길이 없게 된다. 한미 교역이 무풍지대가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 1기 첫해인 2017년 미국의 대한 무역 적자는 229억 달러였지만 지난해는 514억 달러였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트럼프 1기 때보다 2.5배 팽창했다는 뜻이다. 차기 행정부가 무심히 넘길 까닭이 없다. 십중팔구, 뒷담당이 쉽지 않은 '압박 카드'가 나온다고 봐야 한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비상 대피로를 확보하는 것은 민생을 지키는 정부의 기본 책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대미 통상 리스크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르면 내달, 늦어도 4월까지 신통상전략을 내놓는다는 얘기도 있다. IRA, 칩법, 무역확장법, 보편관세 등의 구체적 이슈도 추려졌다고 한다. 하지만 미 대선 결과가 경제·통상만이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타격을 가할 것이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상 분야만 들여다봐선 곤란한 것이다.

트럼프가 부르는 지정학적 혼란은 미래의 걱정거리가 아니다. 트럼프는 최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도록 러시아를 부추기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대서양 동맹을 뿌리째 흔든 것이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가 정상이 일제히 성토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미안한 척도 하지 않는다. 이렇듯 한 동맹권이 한반도를 향해 발동되면 어찌 되겠나. 북한 등의 오판을 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한 전방위적 경계와 대처가 필요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트럼프 1기 때의 '무임승차론' 기억도 생생히 남아 있다.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며 2만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켰다고 수차례 위협했다. 한미 혈맹을 존중하는 기색은 거의 없었다. 외려 헐뜯기 바빴다고 봐야 한다. 그는 "한국은 우리에게 TV를 파는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준다"며 한국과 한국인을 겨냥해 "우리에게 바가지 값을 씌우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안보우산, 핵우산은 지구촌 안전을 지키는 핵심 요소다. 우리 국가안보도 경제·통상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기대고 있다. 세계와 동북아, 한반도를 지키는 안보우산에 머구름이 드리운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의 무개념 발언에 유럽 사회가 화들짝 놀라는 것처럼 우리도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강력한 외교 역량이 발휘돼야 한다. 통상 외교도, 안보 외교도 다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명심할 일이다.

투자전략의 방향타 '실적전망'

매년 초가 되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꼭 챙겨봐야 하는 공시가 있다. 바로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공정공시)'이다. 자율적 공시사항이므로 모든 상장기업이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종을 대표하는 많은 기업이 연초에 공시를 내고 있어서 이 부분만 들여다봐도 한 해 주식투자 전략을 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단, 올해는 도움보다는 조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낙관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기업들이 없다.

전자공시시스템 활용에 실적예측

2023년까지 업황이 매우 좋았던 현대자동차는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 역대급 실적을 공시했지만 2024년 목표 판매량은 424만 대로 2023년의 목표 432만 대보다 8만 대를 줄였다. 수출은 2023년 판매량보다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지만, 내수 판매량은 2023년도 실제 판매량 76만 대보다 적은 70만 대로 예상했다.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깔렸다고 볼 수 있다.

실제 1월 판매량을 집계해서 공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현대차는 국내에서 약 5만 대, 해외에서 27만 대 정도를 팔았다고 한다. 자동차 판매량이 줄면 후방에 있는 자동차 부품기업이나 철강, 화학, 플라스틱, 유리 등 산업도 영향을 받게 되니 후방산업에 대한 투자도 망설여지게 된다. 단, 현대차나 기아의 경우 전체 판매량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기 때문에 해외 경기를 잘 살펴야 한다. 내수 판매량이 줄어도 미국이나 인도 같은 주요 수출국의 경기나 경제성장률은 괜찮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대호황을 누렸던 조선업도 올해 예상이 썩 좋지 않다. HD현대중공업은 1월 3일에 2024년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공시를 통해 올해 목표 수주액을 95억 달러로 제시했다. 이는 2023년의 목표 수주액 119억 달러보다 20% 적다. 2023년에는 목표 수주액을 30% 초과한 154억 달러나 달성했는데 올해는 95억 달러로 제시했으니 전년도 실제 수주액 대비

논현로

박동흠
회계사



38% 넘게 감소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역시 조선 기자재나 철강, 화학 등 후방기업들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해 목표실적을 늘려 잡은 곳도 있다. 시가총액 3, 4위인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렇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달 26일 공시를 통해 올해 매출 목표를 지난해 대비 약 4~6% 성장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매출 성장률 32%보다는 매우 낮다. 즉 이차전지 산업의 성장은 여전하겠지만, 성장률은 크게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에 매출액이 23% 정도 증가했지만 2024년은 12%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역시 이 업계도 성장은 하지만 성장률은 둔화할 것 같다. 그래도 성장은 하나까 다른 업종보다는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냉정한 곳이다. 성장주로 분류되었던 종목의 경우 이미 기대감으로 상승했는데 이렇게 성장 폭이 둔화되어 버리면 주가는 급격한 내리막길을 탄다.

비관론 금물... 주가는 늘 하락·상승 반복

많은 대기업이 올해는 작년보다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산업을 가장 잘 아는 대표 기업들조차 이렇게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니 개인투자자는 더욱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늘 하락과 상승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다시 좋아질 날이 올 것이다. 단 그때까지는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관심 있는 섹터가 있다면 DART에 들어가서 기업들의 관련 공시를 한번 검색해 볼 만하다.

진료실 풍경

우리 몸에도 '유산'을 남기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진행한 UKPDS (United Kingdom Prospective Study)는 당뇨병 치료에서 이정표로 알려진 연구이다. 1977년에 시작되어 2021년에 끝난 연구로 5102명의 2형 당뇨병 환자들을 44년간 추적 관찰하였다. 연구자들은 당뇨병 환자들을 적극적 혈당 조절 그룹과, 당시에는 표준치료였던 느슨하게 혈당을 조절한 그룹으로 나누어 먼저 20년간을 추적 관찰하였다.

20년 연구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처음 당뇨병으로 진단되었을 때 절반의 환자들에서 이미 망막병증 등의 합병증이 동반되었고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 세포의 분비 능력도 감소하여 있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혈당을 관리한 그룹에서 당뇨병으로 인한 미세혈관합병증이 감소해 당뇨병에서 적극적인 혈당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었다.

연구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두 그룹 간 치료에 있어 어떤 개입도 하지 않고 그대로 10년을

더 추적관찰만 했다. 당연히 두 그룹 간에 혈당 차이는 사라졌다. 2007년 9월 30일에 연구는 끝났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두 그룹 간에 혈당의 차이가 없어졌음에도 초기에 엄격하게 혈당을 관리했던 그룹에서 미세혈관합병증의 감소 효과는 지속되었고 심근경색과 사망률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우리 몸의 세포는 대사를 기억하는 능력이 있어 안정적으로 혈당을 유지한 기간이 길수록 좋은 방향으로 당 대사를 이끌어 간다. 이것을 레거시 이펙트(Legacy effect), 유산(遺産) 효과라고 부르는데 최근에는 혈당뿐 아니라 혈압이나 고지혈증 치료에서도 잘 조절된 기간이 길수록 그것을 기억해 안정적으로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유지하는 레거시 이펙트가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유산은 자녀들에게만 남기는 게 아니었다. 오늘이 삶이 내 몸에도 유산이 되어 기억으로 쌓인다. 올해는 우리 몸에 좋은 유산을 남기는 목표를 세우면 어떨까? 조석현 누기광명의원 원장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20,000원 1부 1,0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미래를 향해, 미래를 향해

변화무쌍한 바다를 향해하는 것은
때로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도,
또 속도를 조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
꾸준히 향해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도, 미래의 미래에도
행복은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SK도 미래를 향해,
미래를 향해하겠습니다.

